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2018년 가을

평신도



한국 평신도 희년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요한 15, 16)

2017 평신도 주일 - 2018 평신도 주일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인사 담당사제 인사말
- 특집 한국, 평신도, 열두 마당
희년 단상
평협 50주년 기념식 참관기
- 만남 평신도가 만난 평신도
평신도가 된다

- 나 늙 신앙 선조를 움직인 한 권의 책
신앙 선조의 불꽃 같은 삶
나의 신앙 선조
- 이야기 사도직 평신도의 꿈과 희망
주보성인과 나

- 배움 작가를 감동시킨 작품
웹툰 '희년이란'
평신도 양서
- 소식 교구평협 · 회원단체

2018년 가을
계간 61호

평신도

CONTENTS

인사

02 담당사제 인사말 / 조성풍

특집

04 한국. 평신도. 열두 마당 / 서상덕

10 희년 단상 / 박명

13 평협 50주년 기념식 참관기 / 송란희

만남

17 평신도가 만난 평신도 / 나권일

21 평신도가 된다 / 김주완

나눔

25 신앙 선조를 움직인 한 권의 책 / 이귀련

27 신앙 선조의 불꽃 같은 삶 / 송란희

30 나의 신앙 선조 / 김경희

이야기

33 사도직 평신도의 꿈과 희망 / 이정희

36 주보성인과 나 / 송재리

배움

39 작가를 감동시킨 작품 / 임선혜

43 웹툰 '희년이란' / 송석철

44 평신도 양서 / 김선동

소식

46 교구평협 · 회원단체 / 염지유

발행인 손병선 아우구스티노
담당사제 조성풍 아우구스티노
발행처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편집장 김문태 힐라리오
편집위원 김선동 루카, 김주완 라우렌시오,
나권일 토마스, 배봉한 세례자 요한,
서상덕 스테파노, 송란희 가밀라,
이귀련 세실리아, 이창훈 알폰소
(가나다 순)
제호 정진석 니콜라오 추기경
표지 평협 50주년 기념식에 참가한 임원진
디자인 · 인쇄 가톨릭출판사

담당사제 인사말

하느님을 향한 시선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조성품 아우구스티노

한국 · 서울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담당사제



“주님 사랑 안에 행복하세요!”

무뎃다는 말로 표현하기에는 부족할 정도로 정말 견디기 어려웠던 여름날을 뒤로하고, 맑고 푸른 가을하늘을 맞이했습니다. 한국 · 서울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와 동반하는 사제로서 지면을 통해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기억할 수 있을까?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담아 둘까?’ 우리는 대체로 자신의 계획에 따라 약속을 하고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뜻밖의 사건으로 새로운 만남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와의 만남이 제게는 그러합니다. 어느 날 사목국 일반교육부의 소임을 명받았고, 또 어느 날 사목국장의 소임이 주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참으로 소중한 사람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남이 저에게 짐이나 의무가 아니라, 함께하고 새로움을 체험할 수 있는 감사와 기회의 자리가 되고 있음에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삶의 자리에서 함께하는 이들과 더불어 하느님을 체험하고 나누고 전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을 테니까요.

이처럼 소중한 이들과 함께 걸어온 길, 사제로서 걸어온 지 25년이 막 지났습니다. 그래서인지 올 한 해는 그동안 참으로 많은 분들과 맺었던 아름다운 시간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 서품 성구, “나는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 28,20)를 되새겨 봅니다. 부족하지만 애썼던 지난날, 그 시간이 가능했던 것은 언제나 함께해 주시는 하느님께서 계셨기 때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사람들, 하느님의 선물이었음에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새삼 깨닫습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라고 마지막 말씀을 남기신 김수환 추기경님을 흉내 내 보게 됩니다.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며 ‘평신도 희년’을 지내는 모든 평신도 역시 저와 같은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의미 있는 어떤 날을 지낸다는 것은 바로 그날을 잊지 않고 간직하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평신도 희년과 더불어 저의 인생살이를 돌아

볼 수 있다는 점이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사제 개인으로서, 또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되새겨 볼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요한 15,16)라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각자 삶의 자리에서 평신도의 사명에 충실했던, 충실한, 그리고 충실할 여러분에게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평신도 희년을 기념하는 현수막에는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와 성 정하상 바오로, 이 두 분의 성인을 한 자리에 모셨습니다. ‘사제와 평신도’의 하나 됨을 기억하고,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요한 13,34)라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사제와 평신도가 서로를 아끼고 극진히 사랑한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전해옵니다. 복자 주문모 야고보 신부와 복자 최인길 마티아, 복자 강완숙 골롬바가 그러합니다. 칼레 신부와 복자 박상근 마티아 또한 그러합니다. 주 신부님 대신 체포된 복자 최 마티아, 신부님의 사목 활동을 성실히 도운 복자 골롬바, 박해받는 교우들을 뒤로하고 떠날 수 없어 자수하여 순교한 주신부님이었습니다. 또 박해를 피해 떠나는 헤어짐에 눈물로 서로를 아꼈던 칼레 신부님과 복자 박 마티아. 서로를 사랑했던 소중한 마음의 작은 씨앗이 오늘날 우리 교회가 커다란 나무로 자라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또한 사랑의 실천을 통해 아름다운 숲을 이루어야겠습니다.

아름다운 숲을 이루어 가야 할 앞으로의 50년에 대해 몇 가지 생각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많은 활동이 ‘하느님 사랑에 대한 깊은 체험’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

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이 언제나 하느님을 향해야 합니다. 하느님을 향한 길이 아닌 그릇된 길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가면 갈수록 그분에게서 점점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둘째, ‘신앙 이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앙이 자신에게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면 누구든지 후손에게 신앙을 물려주고 싶을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재물을 유산으로 물려주고자 하는 마음에 비추어 본다면 말입니다.

셋째, ‘평신도 영성’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영성적 삶의 형태가 있습니다. 또 그러한 모범에 따라 훌륭히 살아가는 고마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신도의 삶에 보다 적합한 영성의 길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교구 사제의 영성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저의 마음이 담긴 욕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신도 성인’의 탄생을 꿈꾸어 봅니다. 우리는 순교하신 평신도 성인들을 많이 모시고 있지만, 일상의 삶을 충실히 살다가 자연스럽게 선종하신 평신도 중에서도 성인이 탄생하기를 기도해 봅니다. 『불꽃이 향기가 되어』(가톨릭출판사)에 담긴 분들, 또 앞으로 담길 수 있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일상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평신도 한 분 한 분이 성인 후보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조심스레 지녀 봅니다.

2014년 우리나라를 방문하신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기억, 희망, 그리고 증언’이라는 세 단어로 그 의미를 설명하십니다. 신앙 선조들뿐만 아니라 나의 삶에 함께하신 하느님께 대한 기억을 바탕으로,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시는 하느님께 믿음과 희망을 두고서, 하느님의 사랑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이것야말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한국평협 설립 50주년 맞이 ‘한국, 평신도, 열두 마당’

정리
서상덕 편집위원



▲ 장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장면의 삶은 무엇보다
순교자적 영성과 수도자적
복음 삼덕의 실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교회는 하느님 백성들의 공동체다. 교회의 일원이자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이들은 평신도다. 평신도들이 받을 딛고 있는 곳은 세상이다. 여기서 평신도들의 소명이 비롯된다. 교회의 본질적 사명인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다. 이 선포는 단순한 말이 아니다.

“한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요한 1,1)고 한 말씀과 이어진다. 이 말씀을 통해 ‘모든 것’(요한 1,3)이 생겨났다.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하느님 창조 역사에 함께하는 것이다. 하느님의 창조사업으로 부름 받은 것이다. 이렇듯 세상 끝 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어질 하느님 나라 건설을 위해 평신도들이 행하는 온갖 형태의 활동을 평신도사도직이라고 한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평신도들은 특히 “복음 선포와 인간 성화에 힘쓰며, 현세 질서에 복음 정신을 침투시켜 현세 질서를 완성하는 활동을 통하여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인간 구원에 이바지함으로써”(제2차 바티칸공의회 문헌 〈평신도사도직 교령〉 2항) 사도직을 수행한다.

평신도사도직은 세상을 시작과 끝으로 한다. 평신도들에게 주어진 복음의 씨앗은 세상 속에서 발아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평신도, 그리고 평신도사도직은 집 안에만, 교회 안에만 머무를 수 없다. 아니,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 평신도들의 사도직분이다.

11 열한 마당 - 이 땅에 뿌린 하느님 나라의 꿈 II

윤석(雲石) 장면(요한, 1899-1966년)

조국에 ‘복음화·민주화’의 빛을 비추다
근현대 한국교회 대표적 평신도 지도자
투철한 신앙심으로 교회의 부름과
시대적 요청에 응답

“발전된 민주국가를 세워주기 바란다.”

5·16 군사쿠데타로 총리직에서 물러나게 된 장면(요한, 1899-1966년)이 자신의 사퇴 성명에서 몇 번이고 강조한 말이다. 그가 자신의 온 생애를 통해 구현하고자 했던 민주주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부서진 안경테를 추스르며 삼엄하게 둘러싼 군인들과 함께 뒷문으로 사라지는 장면 총리의 모습은 한국, 또 한국교회가 걸어간 질곡의 길을 그대로 상징한다. 장면의 퇴장은 한국 민주주의 뿐만 아니라 복음화 여정에 있어 크나큰 궤절이자 손실이었다. ‘부패’, ‘무능’으로 덧씌워진 장면의 좌절은 한국교회, 그리고 이 땅 신앙인들의 좌절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가 한국 근현대 역사가 가질 수 있었던 최고의 민주주의자, 민주투사였음을 아는 이는 많지 않다. 그만큼 그에게는 많은 거적이 덧씌워져 있다. 5·16 군사쿠데타를 막지 못한 책임이 대표적이다.

“무수한 시민들이 피를 흘리게 할 수야 없지...”

장면은 자신의 정치적 좌절보다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을 먼저 떠올렸던 것이다. 그토록 믿었던 미국마저 등 돌리고 몰라라 하는 마당에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무엇이였을까. 쿠데타 후 서울 퍼런 군부세력이 장면 총리가 이끌던 제2공화국 각료들의 집을 뒤져 부정부패의 꼬투리를 잡으려 했지만, 나온 것은 한 장관 집에서 찾아낸 아이스박스 한 개가 다였다.

장면은 총리가 된 후 모든 공무원들에게 점심 때 외식하러 나가지 말 것을 주문했다. 자신도 도시락을 싸와 집무실에서 점심을 해결했다. 이 때문에 야당과 각종 언론에서조차 민주당 내각을 ‘도시락 내각’이라고 비꼰 정도였다. 한마디로 부패와는 한참이나 거리가 먼 권력이었던 것이다.

신앙인 장면

장면은 1899년 8월 28일 서울 종로구 적선동 외가에서 장기빈(례오)과 황 루치아의 3남 4녀 중 맏이로 태어났다. 1899년 9월 12일 서울 중현(현 명동) 본당에서 주임 빅토르 신부에게 유아세례를 받았다. 그는 국무총리가 되고 나서도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 정도로 기도와 순종, 인내가 몸에 밴 인물로 성장한다.

이후 아버지의 근무지인 인천 전동으로 이사해 1906년 8월 4일 인천 성당 부설 박문학교(현재 박문초등학교)에 입학, 한학과 수학 등을 공부했다. 박문학교 보통과(1910년)와 고등과(1912년)를 졸업한 그는 학창시절 내내 공부와 신앙 활동에만 전념했다. 15살 되던 해 뒷날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의 전신인 수원농림학교에 입학했다. 1917년 3월 농림학교를 졸업한 장면은 편하게 살 수 있는 관리가 되는 길을 포기하고 미국 유학을 결심한다. 그해 9월 경성 중앙기독교청년학관(현 서울 YMCA) 영어학과에 진학했다. 청년학관 졸업반 재학 중인 1919년 3월 1일 3·1 만세 운동에 참여할 정도로 열혈청년이었다.

1920년 3월 청년학관(YMCA)을 졸업한 그는 한국에 진출해 있던 메리놀 외방선교회의 후원으로 그해 10월 한국 천주교 청년회 대표자격으로 동생 장발과 함께 미국 유학을 떠났다. 1921년 9월 미국 뉴욕의 맨해튼 가톨릭대학교 영문학과에 진학해 부전공으로 교육학을 공부했다. 1925년 6월 맨해튼 가톨릭대학교를 졸업한 그는 조국 복음화에 뜻을 두고 귀국을 결심한다. 그해 6월 30일 이



▲ 미국 맨해튼 대학 유학시절(1921~25) 동생들과 함께. 뒷줄 왼쪽부터 장발, 장면, 장 양네다(정은·영원한 도움의 성모회 초대 원장) 수녀, 처조카 김 말가레다 수녀



▲ 1948년 맨해튼 대학 토마스 총장으로부터 명예법학박사 학위를 받고 있는 장면 박사. 가운데는 스펔만 추기경



▲ 재속 프란치스코회 회원들과 함께 한 장면(원 안)

탈리아에 도착, 7월 5일 로마 바티칸에서 열린 '한국인 79위 순교자' 시복식에 한국인 신자 대표로 참석하고, 7월 6일 당시 교황이었던 비오 11세를 알현한 후 8월 29일 귀국했다.

귀국 후 그의 평신도사도직 활동이 본격화된다. 평안남도에서 있던 메리놀센터 하우스의 어학교수가 그에게 주어진 첫 십자가였다. 1927년부터는 메리놀신학원의 당시 은사였던 패트릭 번신부가 있던 평양 성당에 근무하며 평양교구 사목을 도왔다. 1931년 서울 동성상업고등학교 교사로 초빙돼 1936년에 교장이 되어 해방 때까지 근무했다. 그는 당시 서울교구장이던 원 라리보 주교의 사목을 적극적으로 돕기도 했다. 서울교구에서 원 라리보 주교와 주간 윤형중(尹亨重) 신부를 중심으로 잡지『가톨릭 청년보』를 발간하자 장발(張勃)·이동구(李東九)·정지용(鄭芝溶) 등과 함께 편찬위원으로 활약했다.

1939년 4월부터 경성 계성국민학교 교장을 겸임하였고, 1939년 9월 천주교 청년회연합회 회장에 선출되기도 했다. 조국의 신자들을 깨우치기 위해 영·한 천주교회 용어 사전인『The Summary of Religious Terms』를 비롯해『교부들의 신앙』등의 번역과『구도자의 길』,『조선천주공교회 약사』등의 출간사업에 힘을 기울였다. 이처럼 장면은 평신도사도직 실현에 일찍부터 다방면에서 선구자 역할을 했다.

투철한 수덕생활

장면은 세속적 지위가 어떻게 바뀌든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함없는 모습을 보였다. 재속 프란치스코회 입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의 면면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분수령이 된다. 미국 유학중이던 1921년, 장면은 한국인으로서 최초로 재속 프란치스코 국제형제회(성프란치스코회 제3회) 회원이 됐다. 이후 동생 장발을 비롯해 가족과 지인들을 차례로 입회시키고, 귀국 후에는 재속회

서울형제회 발족에 나섰다. 서울형제회 초대 회장에 이어 1961년에는 재속회 한국연합회 초대 회장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장면의 삶은 무엇보다 순교자적 영성과 수도자적 복음 삼덕의 실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특히 수도 삼덕 중 '청빈의 덕'은 정치인이 된 후에도 부정부패를 근절해 나가는 데 밑거름이 됐다. 삶의 단 한순간에도 '정결의 덕'을 어기지 않고 살며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행동을 굳건히 가르쳤다. 또한 '순명의 덕'으로 교회 일에 헌신하는 생을 보냈다.

소명에 충실한 참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장면의 면모는 세상 한가운데서 교육자로, 외교관으로, 또 정치인으로 유감없이 드러났다. 장면의 온 생애를 통해 가장 큰 화두는 조국의 복음화를 통한 독립정신 고취와 자유민주주의 확립이었다. 장면은 미국 유학을 준비하며 용산 예수성심신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중, 독립운동에 참여한 신학생들을 퇴교 조치하는 암울한 시대 상황에 맞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일깨우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독립투사들의 진정한 지도자는 오직 한 분이 계신다. 천주님이야. 맨주먹으로는 왜놈들의 총칼을 당해내지 못하지만, 신앙심과 천주님 앞에서는 무기란 무력한 것이지. 모든 동포가 천주님을 믿도록 우리가 노력해야겠는데…”

장면은 민족의 복음화가 독립에 기여하는 길임을 굳게 믿었던 것이다. 그의 미국 유학도 결국 하느님에 대한 새로운 앎을 넓히고자 하는 모색의 결과였다. 미국 유학생생활을 통해 장면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배우고 맛보았으며, 언행을 종교적 양심에 비추어보고 행동하는 습성을 길렀다.

해방은 교육과 종교 운동을 통해 민족의 미래에 투자해온 그의 역량을 외교와 정치로 돌리는

새로운 전환점이 됐다. 당시 장면은 민족의 최대 당면 과제를 자주·자립과 문화·교육 정책의 강화로 판단했다. 해방이라는 복음화의 여정에 분수령을 맞은 한국교회는 복음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길에 장면을 내세웠다. 장면은 교회의 권고에 따라 1946년 2월 미군정 자문기관인 민주의원 의원으로, 같은 해 12월에는 입법의원 의원으로 활동한다.

“가톨릭교도는 그 국민의 변명을 위해 저마다 그 책임을 져야 한다. … 가족 또는 그가 접하는 집단과 단체를 그리스도교회함으로써 … 이 감화는 더 넓게 그 나라의 온 사회적 및 정치 생활에까지 미칠 것이다.”

1948년 5월 10일 총선거에서는 무소속으로 제헌국회 의원이 되면서 자유민주주의의 정치 이념과 제도의 보편화 작업에 본격적인 발걸음을 내디뎠다. 제1·2공화국 시기에는 국무총리와 부통령 등을 역임하며 부정부패 청산과 반독재 투쟁에 나섰다. 그의 이러한 노력으로 교회는 민주주의 정신의 보편화와 민주세력의 보루라는 평가를 얻게 된다.

“종교 및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민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생활의 민주적 발달을 도울 수 있는 … 그리스도교 원리를 따라 깊은 지혜와 굽힐 줄 모르는 결심으로 장애와 싸워야 한다. 정당에서 지도하는 자리를 차지하는 그리스도교도도 정당의 정책에 그리스도교 원리를 침투시키고 정부에게 그 실시를 촉구함으로써 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국가·신앙 재건을 위한 외교 노력

장면은 외교에 있어서도 뛰어난 역량을 발휘했다. 이는 그의 굳건한 신앙이 바탕이 됐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세계는 나날이 좁아져 가고 모든 종족과 모든 국민 사이의 접촉은 더욱 친밀하게 되어간다. 사



▲ 제3차 유엔 총회에 수석대표로 참석한 장면



▲ 여권



▲ 기도하는 모습

람들 사이의 커다란 일치와 참된 평등을 구하는 소망은 당연한 것이며 정당한 것이다. 하느님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형제라는 이 교회의 가르침은 피부의 색깔, 인종, 사회적 지위의 구별 없이 인격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 평등한 존엄을 각자에게 주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교도가 아닌 우리 형제, 특히 지식인에게 교회의 이 가르침을 열심히 또 절실하게 알려야 한다.”

1948년 12월 12일 열린 제3차 유엔 총회가 대한민국을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하도록 한 데에는 장면을 수석대표로 한 한국 유엔 대표단의 활약이 컸음은 잘 알려져 있다. 1949년 당시 한국의 재외 공관은 장면이 대사로서 있던 주미 대사관뿐이었다. 따라서 대한민국 승인 외교는 전적으로 미국 워싱턴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장면은 중추적 역할을 했다.

6·25전쟁은 장면의 존재가치를 다시 한 번 드러나게 했다. 전쟁이 터지고 남한의 존립이 풍전 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는 또다시 역량을 발휘했다. 그는 유엔 안보리에서 연설을 통해 한국의 상황을 설명하고 군사적 원조를 호소했다. 6월 27일 안보리 결의를 이끌어낸 것은 그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와 함께 그는 트루먼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6월 30일 저녁에 미국이 한국전 참전을 발표하고,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 제24사단을 한반도에 투입하게 하는 결정을 내

리게 함으로써 한국을 지키는 데 크게 공헌했다.

장면의 또 하나의 공헌은 전쟁으로 파괴된 한국 재건의 기초를 확립한 것이다. 주미대사로 있던 장면은 동분서주 노력해 유엔 총회가 1950년 10월 7일자 결의로 유엔 한국위원단을 개편해 7개국(호주, 칠레, 네덜란드, 파키스탄, 필리핀, 태국, 터키)으로 구성된 유엔 한국통일부흥위원단(United Nations Commission for the Unification and Rehabilitation of Korea)을 신설하도록 해 전후 복구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했다.

장면은 이렇게 외교가의 변방이었던 한국 문제를 한반도의 틀을 넘어 세계적인 문제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한국을 국제 사회 속에 새롭게 자리매김하게 했다. 이러한 그의 모습 속에서 국가와 인종, 종교를 초월한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참 그리스도인, 참 평신도의 면모를 엿볼 수 있다.

12 열두 마당 - 이 땅에 뿌린 하느님 나라의 꿈 Ⅲ 한국. 2018. 평신도.

신앙선조들이 그랬듯 2018년 한국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평신도들에게도 하느님께서 주신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있다.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이 씨앗은 세상 속에서 발아하고 성장해 나간다. 복음의 씨앗이 본격적으로 뿌려진 조선시

대부터 근현대 역사를 거치며 신앙 선조들이 몸소 보여주고 살아간 믿음의 삶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목소리를 전해주고 있을까. 그것은 태초부터 있었던 그 '말씀'을 화석화하거나 박제화하지 말라는 것은 아닐까.

“예수님께서 아직 군중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분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그분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있었다. 그래서 어떤 이가 예수님께, ‘보십시오, 스승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스승님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계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당신께 말한 사람에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고 반문하였다.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을 가리키시며 이르셨다.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마태 12,46-50)

교회는 그 시작부터 '실천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마태 12,46-50)임을 가르쳐왔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작부터 '순교'라는 가장 고귀한 실천으로 신앙을 증거하고 믿음의 씨앗을 뿌려왔다. 주님께서 심어 놓으신 '복음의 씨앗'을... 피를 흘리는 적색순교든, 그렇지 않은 백색순교든..., 죽음조차 마다하지 않고 신앙 선조들이 지키고자 했던 것은 바로 하느님의 '말씀'이었다. 말씀 그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 무엇으로도 가릴 수 없는 것이다. 이 땅에서 열매 맺어 온 신앙의 역사는 말씀을 가리고 숨기려는 행위와 맞서 순교라는 실천으로 드러났다.

순교영성을 모태로 하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 '말씀'과 그 말씀의 '실천'을 자랑으로 여긴다. 한국 평신도들의 정신과 활동이 새로운 전기를 맞은 것은 제2차 바티칸공의회(1962-1965년) 정신과 가르침에 따라 1968년 7월 현재의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이하 한국평협)의 전신인 한국가톨릭 평신도사도직 중앙협

의회(The Korean Catholic Central Council for the Lay Apostolate)가 창립되면서였다. 평신도사도직의 활성화를 위해 발족한 한국평협은 이후 한국 사회에 안에 하느님 말씀을 전하는 참병 역할을 해왔다.

그 첫걸음은 1970년 9월 6일 한국교회 주교단의 모자보건법안 반대 성명에 대한 지지로 드러났다. 이후 1976년 3월 구속 사제와 고통 받는 형제를 위한 '사순절 평신도 기도 운동', 1976년 12월 13일 명동 3·1절 기도회 사건 관련 '평신도 여러분에게 고함' 성명 발표, 1978년 10월 22일 '추곡수매가 인상 건의', 1979년 8월 16일 '안동 오원춘 사건에 대한 대정부 건의문' 채택, 1982년 12월 3~4일 '제1회 여성문제 심포지엄' 개최 등 세상 속에서 진리의 빛이 사그라질 때마다 당당히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같은 발걸음을 밀거름 삼아 1983년에는 대사회운동으로 신뢰회복운동을 펼치기 시작했다. 이 신뢰회복운동은 1989년부터 '내 탓이오 운동'으로 이어졌고, 이후 '우리상품 쓰기'와 '우리농산물살리기 운동', '평신도 제자리 찾기 운동' 등으로 전개됐다. 2001년에는 도덕성 회복을 위한 '똑바로 운동'으로 새롭게 신뢰회복의 불을 지폈으며, 2004년부터는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세상' 구현을 위한 캠페인을 벌였다. 특히 2015년부터는 사회 전반의 의식개혁을 돕는 '답게살겠습니다' 실천운동을 교회 안팎에 제안해 그리스도의 정신과 가치를 사회 전체로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세계 교회는 교회 역사에서 유례없이 평신도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어 이 땅에 가톨릭 신앙의 싹을 틔우고 키워가고 있는 한국교회에 갈수록 큰 기대와 희망을 걸고 있다. 그 배경에는 순교영성을 밀거름으로 하는 한국교회 평신도들이 있다. 평신도사도직에 대한 새로운 자각을 통해 더욱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복음화의 길을 걸어 나갈 때, 평신도는 이 땅의 새로운 복음화의 주역으로 거듭날 것이다. 

한국평협 설립 50주년 맞이 희년 단상(禧年斷想)

박명 토마스 아퀴나스 / 한국 · 서울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사무총장



▲ 박명 사무총장

2018년 7월 21일 대전은 24년 만의 최고 기온인 35도를 예보했다.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이하 한평) 창립 50주년 기념행사의 시작은 연극 〈빛으로 나아가다〉로 결정됐다. 한평에서 발간한 20세기를 살아간 평신도 이야기 『불꽃이 향기가 되어』에 등장하는 10명의 평신도 중 김익진 프란치스코를 선정하여 3월부터 서울대교구 가톨릭연극협회(서가연)가 공연준비에 들어갔다.

기념식 시작 시간이 됐지만, 길이 막혀 교황대 사님과 대전교구장님의 도착이 늦었다. 기념식이 예정시간보다 20분 늦게 시작됐다. 막이 오르고 참석자들은 배우들의 대사와 연기에 집중했다. 조명 시설도 없고 무선 마이크 사용도 제한돼 걱정했지만, 성당 내부에 창문이 많아 햇살이 잘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배우들도 연기에 몰두하여 한숨을 돌렸다. 그러나 나는 머리가 복잡했다. 당초 계획보다 30분이 지연되면 여러 교구에서 온 신자들은 귀가 시간이 늦어질 테고, 대전교구에서 참석한 신자들도 행사 중간에 자리를 뜰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앞섰던 것이다. 연극이 끝나자 눈물을 보이는 이도 있었고, 감격을 감추지 못하고 뜨거운 박수를 보내는 이들도 있었다. 연극은 잘 끝났다. 무대 철거에 있어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이었다. 제대 중앙 통로에 안전선을 치고 대전교구 봉

사자와 한평 임원들이 조용히 무대 철거를 시작했다. 20여 분 만에 깨끗이 제대가 복구됐다.

그 뒤에 이어진 기념식과 기념미사는 큰 문제 없이 진행됐다. 기념식이 예정보다 10분 단축되어 5시간의 행사가 아무런 사고 없이 예정대로 끝났다. ‘한평 창립 50주년’ 기념행사 중 제일 큰 행사가 끝났다. 하지만 기쁨보다는 오히려 아쉬움이 많았다. 참가자들이 한평 50년의 의미를 얼마나 새기고 갔을까? 희년의 은총과 기쁨을 충분히 나누었을까? 평신도 사도직 활동이 더욱 성숙할 수 있는 동기를 줬을까? 갑자기 마음이 공허해졌다.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한편 희년을 맞이해 나 자신을 성찰해 본다. 희년은 뜻 그대로 경사로운 해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음으로써 하느님을 찬미하는 해다. 단절된 하느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기쁨이 넘쳐나는 해다. 살아있는 이들과 연옥 영혼들이 정화하여 기쁨을 나누는 해다. 그런데 나는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직업인이 됐다. 기쁜 해가 아니라 오히려 귀찮은 해를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반성해 본다. 직장을 은퇴하고 여행과 취미활동 등 여유로

운 시간을 계획했다. 학창시절부터 교회활동에 참가하여 보람된 일도 있었고, 안타까운 일도 경험했다. 이제 교회 일은 적당한 선까지 참여하고 가족과 친구들과 여생을 보내는 것을 계획했다. 그런데 금년 초에 뜻밖의 제안을 받았다. 서울 평협에서 봉사를 권유받았던 것이다. 하느님으로부터 해방될 계획과 교회 상근 봉사직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다. 능력의 한계와 나이로 인한 체력의 저하를 나 스스로 알기에 봉사가 불가함을 설명했다. 그러나 내심으로는 아직까지 하느님이 불러주심에 갈등했다. 어떤 선택이 나를 자유롭게 할 것인가? 결국 여태까지의 경험으로 교회 일을 권유받고 거절하면 마음이 개운하지 못한 것을 알기에 수락하고 말았다.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어깨가 무겁다. 특히 희년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인지는 아직도 모르겠다. 하느님은 고통을 통해 더 큰 기쁨을 주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일수록 기쁨이 컸다. 평협에 봉사하면서 이런 기쁨이 계속 되고 있지만, 귀찮아하면서 지나친 것은 없는가를 새삼 살펴보게 된다.

희년의 은총 중 하나는 관계회복이다. 관계회

복에서 표면적이고 실질적인 회복은 경제적 도움이다. 한국 평협에서 희년 실천 운동에 관한 실천 사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열띤 토의 주제 중 하나가 ‘임차료 동결’이었다. 부동산을 임대하고 있는 교우들이 희년에는 임차료를 인상하지 말고 동결하기를 권고하자는 안건이었다. 개인적 여건이 다를 뿐만 아니라 사회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교회가 관여한다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희년 정신을 살려 교우들에게 장려해 보자는 것으로 결정했다. 그 후 여러 경로를 통해 ‘임차료 동결’의 실천 사례를 들었다. 기업을 운영하는 이, 작은 상가를 임대한 이, 월세를 받아 사는 할머니까지 다양한 분들이 참여했다. 희년을 맞아 참으로 보람된 일을 계획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희년 기념 연극의 주인공인 김익진 프란치스코 선생은 부잣집 아들이었다. 그는 많은 땅을 교회에 기증하고 농지는 소작인들에게 무상으로 나누어 주었다. 노년에는 눈이 멀어도 치료할 수 없을 정도로 청빈을 실천했다. 구약 시대의 희년은 개인의 능력 차이로 인한 불균등한 경제력을 50년마다 다시 시작하는 경이로운 시간이었다. 교황 프란치스코의 말씀 중 장례행렬에 트럭이



▲ 교황대사, 대전교구장과 함께

특집

한국평협 설립 50주년 맞이 평협 50주년 기념식 참관기

송란희 편집위원



▲ 박명 사무총장



▲ 평협 50주년 기념식 전경

따라가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생각한다. 알면서도 실천이 어려운 것이 경제문제다. 한편 인간관계에서 발생한 불화를 용서하여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도 중요하다. 소위 갑과 을로 구분되는 관계를 배려와 사랑의 관계로 전환하는 것이 희년정신이다.

여기서 나는 하느님과 관계회복을 생각한다. 개인적 기도시간을 돌이켜보면, 내가 갑이고 하느님을 을로 생각하고 행동한 듯하다. 희년은 못난 작은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맨발로 돌아가는 시기다. 가정에서, 사회에서 맺힌 원망들을 풀기 위해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거룩한 시기다. 교회는 희년에 가시적 은사로서 전대사를 베푼다. 보잘것없는 나를 통하여 연옥 영혼이 천상 복락을 누리는 기쁨을 주시는 것이다. 살아 있는 이의 기도가 망자의 잠벌을 없애주는 은총을 누릴 수 있다. 하늘나라의 신비에 참여할 수 있으니 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

이제 희년이 2개월 남짓 남았다. 남은 행사를 생각하면 명절을 맞는 며느리의 심정이다. 은근히 시간이 빨리 가기를 바란다. 그런데 문득 언제 다시 희년을 맞이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니 남은 기간을 허송세월할 수는 없다. 우선 전대사를 청해야겠다. 생각나는 영혼들의 이름을 적어본다. 삼십여 명이다.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기에도 바쁜 인원이지만, 실천을 다짐해 본다. 두 번째는 쉬는 교우에 속하는 친구들을 위하여 식사 자리를 마련하고 싶다. 주변에 쉬는 교우들이 많음을 최근에 알았다. 성당에서 봉사한다고 이야기하면 자신도 쉬는 신자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다. 금년이 경사로운 해고, 제자리로 돌아올 것을 초대하는 시기임을 그들에게 알려야겠다.

마지막으로 한국 평신도 희년의 주제 성구 “내가 너를 뽑아 세웠다.”(요한 15,16)를 묵상하고자 한다. 요한복음 15장의 소제목은 ‘나는 참 포도나무다’이다.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쳐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모두 깨끗이 손질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15,1-2)고 말씀하신다. 나는 열매를 맺는 가지인가? 맺었다면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하느님은 의심과 교만과 방종이 가득한 나를 쳐내시지 않으셨다. 다시 주제 성구를 천천히 읽어 본다. “내가 너를 뽑아 세웠다.” 갑자기 ‘뽑아’에서 멈춘다. 예수님이 나를 뽑아(chose) 여기에 있게 하신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뽑으셨다. 희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무심코 보낸 시간이 이제야 아쉽다. 남은 기간 나를 뽑아 주신 하느님의 사업에 매진하리라 다짐해 본다. 끝으로 무더위 속에서 평협 50주년 기념행사가 무사히 끝나도록 애쓴 대전교구 평협과 대흥동 본당 봉사자들, 그리고 수고한 모든 이들에게 희년의 은총이 가득하길 기도드린다. 

연일 35도 이상을 오르내리는 폭염 속에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창립 50주년 기념식이 지난 7월 21일 토요일 대전 대흥동 주교좌성당에서 열렸다. 한국·서울 평협에서는 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 위원장이신 손희송 베네딕토 주교님과 평협 담당사제인 조성풍 아우구스티노 신부님, 한국평협 손병선 아우구스티노 회장님과 평협의 임원들을 모시고 오전 10시 명동 서울대교구청 앞마당에서 출발했다. 버스 안에서 손 주교님은 “더운 날씨지만 뜻깊은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 시간을 내준 모든 분들을 축복한다.”는 말씀을 하셨다.

사실 이 정도 더위쯤이야... 한국교회 평신도의 ‘뜨거운 열정’이야말로 교회 초



▲ 기념미사.

기부터 증명된 바 있지 않는가. 보편 교회 안에서 한국교회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항상 언급되는, '세계 교회사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단 한 명의 성직자도 없이 세운 자발적 평신도 신앙 공동체'라는 수식어처럼 말이다.

“보아라. 내가 선택한 나의 종, 내가 사랑하는 이, 내 마음에 드는 이다. 내가 그에게 내 영을 주리니 그는 민족들에게 올바름을 선포하리라.”(마태 12,18)

답소를 나누며 출발한 일행은 마지막 휴게소에서 시작한 묵주기도 <환희의 신비>를 마칠 때쯤 예약한 식당에 도착했다. 간단히 식사를 마치고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대흥동 주교좌성당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특별히 50주년 행사를 대흥동 성당에서 개최한 이유는 50년 전(1968년 7월 23일 토요일) 바로 그곳에서 한국 평협 창립 행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성당에 도착하니 벌써 많은 분들이 행사 준비를 하고 계셨다. 특히 더운 날씨에 큰일을 치르기 위해 애쓴 대전 평협 식구들을 만나 반가운 인사를 나누었다. 접수를 시작한 오후 1시부터 각 지역에서 평협 관계자들이 속속 도착했다. 오랜만에 만난 회원들은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기쁨을 나누었고, 대전교구 신자들은 멀리서 오는 분들을 위해 앞자리를 기꺼이 양보하고 뒷자리를 채워 주었다.

이번 행사의 특별함은 그 시작을 한 편의 연극으로 했다는 점이다. <빛으로 나아가다>(김문태 원작, 서가연 공동각색, 민복기 연출)는 김익진 프란치스코의 불꽃 같은 삶을 조명하는 것이다. 김익진은 지난 2014, 2015년도에 한국 평협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귀감이 될 '빛과 소금- 20세기 이 땅의 평신도 10인' 가운데 1인으로 선정된 분이다. 이들 10인의 신앙과 삶은 2년에 걸쳐 『가톨릭평화신문』에 연재되었고,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단행본 『불꽃이 향기가 되어 1, 2』로도 출판되었다. 한국 평협의 기획이 양질의 콘텐츠로 재생산되는 것을 보는 것도 행사에 참



▲ 유홍식 라자로 주교와 함께 입당하는 교황대사 알프레드 수에레브 대주교



▲ 평협 50주년 선언문을 낭독하는 손병선 회장



▲ 손희송 주교 환영사



▲ 알프레드 수에레브 대주교 축사



▲ 손병선 회장 인사말



▲ 최홍준 고문 특강

석한 기쁨 중 하나였다.

「평신도 활동의 연원과 방향성」을 주제로 한 최홍준 파비아노 고문의 특별강연은 한국 평협 50년을 돌아보며 단체 사도직의 소명과 나아갈 바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해주었다. 이어 새롭게 한국 평협 홍보대사로 위촉된 듀오 메타노이아(김정식 로제리오, 송봉섭 요한)의 시작성가 '나를 따르라'로 기념식을 시작했다. 한국가톨릭 여성단체협의회 김명자 소화 데레사 회장의 '시작 기도'처럼 "50년 전 대흥동 성당에서 출발한 한국 평협이 새로운 50년을 향해 출발하는 희망의 날이 되기를" 함께 소망했다.

기념식에서 손희송 주교님은 "50년 전 이 땅에 한국 평협을 탄생하게 하신 은총과 똑같은 은총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주십사 청한다."며 "평신도로서 우리가 받은 사명을 새기고 각자의 위치에서 답게 살면서 서로 힘을 합쳐 주님의 포도밭을 성실하게 일구어 나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국에 부임하신 지 채 2개월이 안 된 교황대사 알프레드 수에레브 대주교님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대신하여 인사를 전한다."며 "어머니 교회에 대한 충실성을 재확인하는 기쁜 자리에 초대해 주어 고맙다."고 했다.

이날 기념 미사의 주례를 맡은 유홍식 라자로 주교님은 "살아보니 모든 것이 하느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었음을 깨닫게 된다."는 의미심장하며 압축적인 말로 강론을 시작했다. 한국 평협 50주년을 맞아 "성직자로서 평신도를 동반자로 생각하며 함께 걸어왔는지 저 자신이 걸어온 길을 성찰해 보았다."는 대목에서는 나 자신이 평신도로서 성직자와 수도자를 사랑으로 대하고 공동책임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에 대해 스스로 반성하기도 했다.

한편 기념식과 기념미사에 참석하지 못하신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님과 이해인 수녀님의 축하 메시지를 미리 녹화하여 영상으로 보여준 행사 실무자들의 기획력도 돋보였다. 대흥동 성당을 가득 메운 신자들을 보며 '주님 보시기에 좋은 자녀가 되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하는 이들이 한국교회를 지탱하는 힘이구



▲ 대전교구 평협회장과 봉사자들



▲ 메타노이아 축하



▲ 연극 출연진



▲ 평협 임원진 단체사진

나.’ 하는 충만감이 들었다. 손병선 회장의 말처럼 우리 자신도 모르게 쌓인 “신앙 적폐, 생활 적폐를 몰아내고 끊임없는 기도로 영혼의 샤워를 자주 하여 식어가는 복음화의 빛을 새롭게 밝히는 평협 공동체로 거듭날 것”을 약속하면서 『한국 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설립 50주년 선언문』을 힘차게 외쳤다.

모든 행사를 마치고 식사를 하며 소회를 나누었다. 그때 지역 교구의 한 분이 이번 행사에서 여성 평신도의 몫이 드러나지 않아 아쉬웠다는 말을 하셨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현재 각 지역에 여성 회장이 한 분도 없다는 사실을 불현듯 깨달았다. 오늘 미사 강론 때도 유 주교님은 “여성 평신도 강완숙과 윤점혜의 신앙심과 교회를 위한 강한 봉사정신과 실천을 본받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안 시켜주어 못 하는 것일까, 못해서 안 시켜주는 것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타의 동생 마리아처럼 좋은 몫을 택하여 충실하게 산다면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자녀가 되겠지.’ 하는 나 나름의 결론도 지었다.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길, 오늘 미사의 복음 환호송이 다시 떠올랐다. ‘하느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네.’ 우리에게는 그분이 주신 ‘화해와 일치’의 사명’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 마음을 무디게 가지지 말고 주변을 돌아보고 평신도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순간’을 놓치지 말아야겠다. 50년 만에 맞은 평신도 회년의 열기를 그냥 이대로 보낼 수는 없지 않겠는가. 

만남

평신도가 만난 평신도

평신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한 봉사자로서 보람

대담 · 정리
나권일 편집위원

김동빈 프란치스코
인천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장



한여름에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집이나 거처를 방문하기가 조심스럽기 마련이다. 더구나 올 여름은 100여 년 만의 기록적인 폭염이 쏟아져 모두가 무더위에 고생을 해야 했다. 인천교구 김동빈 평협 회장과는 몇 차례의 전화통화와 이메일 교환으로 이뤄졌다. 김 회장께서는 직접 뵙지 못한 아쉬움을 진술한 답변 글로 대신해 주셨다. 바쁘신 가운데 성실하게 답변 자료를 보내고 사진까지 챙겨주신 김동빈 회장과 인천교구 평협 임원진께 감사드립니다.

❖ 인천 평협의 올해 현안은 무엇인지요?

올해는 한국평단협 50주년을 맞아 평신도 회년을 지내는 해인 만큼 인천교구 평협은 1년간의 ‘평신도 회년살기 운동’을 현안으로 설정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년살기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먼저 평신도 회년 홍보물과 홍보포스터를 제작해서 교구 내 전 본당과 관련기관에 배포해서 회년 사업의 의미와 참여분위기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인천교구만의 특별한 회년맞이 사업이 있는지요?

사실 인천평협은 올해 회년을 준비하는 특별한 행사를 많이 준비하지는 못했습니다. 1월에 교구장이신 정신철 주교님께 임명장을 받고 보니 이미 전년도에 수립된 사업계획과 예산이 확정된 상황이었어서 변경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올해 사업으로 확정된 현안들을 하나하나 성실히 수행하면서 일부 사업을 추가로 보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가오는 10월에는 평협 50주년을 기념하고 금년도 회년사업을 뒤돌아볼 수 있도록 인천평협이 기념미사와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특별히 교구 모든 공동체와 본당 사목회원들을 모시고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평협 조직의 확대와 정비에 노력

❖ 인천교구 제21대 평협회장 취임하시면서 교구장님의 사목 지침을 중심으로 평신도들의 영성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평협 회장을 맡으면서 드린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선 교구장님의 사목 지침을 중심으로 평신도들의 영성을 강화하고 평협 조직을 확대 정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여성부와 성소개발부를 신설해 교구가 사업 활동을 전개하는 데 함께할 것이라는 의지도 밝혔고요. 이처럼 인천평협은 가톨릭 정신구현과 인천교구 발전을 위해서 교구장님의 사목지침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평신도들이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시책 시행을 가장 큰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당 회장단 연수를 비롯하여 정기 임원회의를 통하여 평신도들의 영적 성장을 도모하고 있고, 평협 주관 행사에 가능하면 본당 평신도들이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정신철 인천교구장 은경축 행사 때 축하하는 김동빈 회장



▲ 인천교구 제3회 성체현양대회 때 인사말을 하는 김동빈 회장

❖ 평신도들의 영성강화를 위해 노력해 오신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인천교구는 교구청 부지 내에 성모당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파티마 성모님 첫 발현일인 지난 5월 13일부터 마지막 발현 100주년이 되는 날인 10월 13일 날 축성식 준비를 위하여 125개 모든 본당 신자들이 성모당 건축현장에 교대로 순회하여 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영성운동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 교구가 지정한 성지순례지를 방문해서 기도 바치기 운동, 생명사랑운동과 연계한 장기 기증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평신도들이 이런 참여 기회를 통하여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교구장님의 사목지침이 평신도들에게 쉽게 이해될 수 있다고 봅니다.

여성연합회와 성서개발부 신설

❖ 취임사에서 평협 내에 여성부를 신설하겠다고 하셨는데요.

1979년 3월 18일, 인천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회칙에 의거해 구성된 인천평협은 그동안 주교님의 승인을 받아 수차례 회칙 개정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교구 소속의 많은 단체들이 공동체 활동을 통하여 봉사와 일반 신자들이 성심을 높이는 많은 활동을 하고 있지만 평협차원에서 공동체 활동이 더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고 대외적으로 위상을 높이고자 평협 소속 단체를 확대했습니다. 여성연합회의 신설이 그 사례이지요. 여성연합회의 경우 그동안은 평협 소속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본당에는 여성연합회라는 단체가 없어서 교구 평협과 서로 연계되지 않았고, 회원 및 활동예산의 한계로 인하여 별도의 사업계획을 갖고 활동하는 데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었습니다. 물론 금년에 신설됐기 때문에 관련 예산확보가 아직은 부족합니다만, 내년부터는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평협 내에 성소개발부도 신설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교구는 물론 본당에서 성소후원회라는 단체명으로 가톨릭대학 지원이라는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면서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활동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 크게 평가받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고, 앞으로 일반신자들의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평협 소속의 성소개발부라는 이름으로 확대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상황에 따라 여성연합회나 성소개발부 외에도 평협 소속 단체를 더 확대하거나 신설하여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결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

❖ 상반기에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해오셨군요! 평협 활동이 회장님께 주는 기쁨이나 보람도 크실 것 같은데요.

부끄럽습니다. 신자로서 기본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평협 회장이라는 높은 직책을 받고 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도 걱정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시간에 쫓겨서 맡은 일이나 행사에 제대로 신경도 쓰지 못할 때에는 직책을 주신 주교님께 너무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개인적으로는 결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올해에 개인적으로 저에게 많은 기쁨을 주셨고 모든 임원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서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졌습니다. 일할 때마다 조금도 착오 없이 평협 사업이 하나하나 마무리될 때마다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 너무 겸손하신 말씀이십니다. 회장님께서도 인천광역시 문화관광체육국장과 재난안전본부장을 역임하는 등 오랫동안 공직에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가천대학교 겸임교수로서 교육



▲ 인천교구는 평협 임원으로서의 역할과 청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연수를 실시했다. 뒷줄 둘째가 김동빈 회장



▲ 정윤화 총대리신부 축일에 영적 예물을 증정하는 김동빈 회장

계에서 활동하시는데요, 회장님께서 신앙을 가지게 된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40여 년을 인천광역시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정년퇴직하였습니다만, 시청에서 중무업무를 담당하다보니 평소에 개신교, 불교, 천주교 교구청에 각종 행사나 업무관계로 자주 접하다보니 여러 종교들을 알게 되고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종교를 갖게 된다면 천주교를 선택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지요. 마침 아내도 과거에 개신교 교회를 조금 다녔던 적이 있었지만 장모님께서 천주교 신자여서 내심 천주교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개신교 장로인 친구가 거의 토요일이면 자기 교회에 이름 올렸으니 나오라고 주말마다 전화를 했고, 중무 업무를 보면서 알게 된 교회 담임목사님께서도 가끔씩 전화하셔서 목사님 교회 나오라고 재촉하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개신교 신자가 될 뻔했지요(웃음). 그렇



▲ 인천교구 사무처장 이용권 신부 환영식 때 축하 꽃다발을 증정하는 김동빈 회장



▲ 교구 행사 때 봉헌예절에 참여하고 있는 김동빈 회장 부부

게 친구로부터 그리고 목사님으로부터 재촉을 받고 있던 10여 년 전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인근에 사는 친구 부부가 일요일 아침에 집에 갑자기 들이닥쳐서 같이 가야 할 곳이 있다며 우리 부부를 억지로 끌고 간 곳이 지금의 옥련동 성당이었습니다.(웃음) 그리고 친구는 우리 부부를 부활반 교리수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강제로(?) 시작된 교리수업이었지만 다행히 한 번도 수업을 빠지지 않았고 무사히 세례를 받게 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퇴직 후에는 본당 사목활동을 조금씩 하면서 성당 활동에 많은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고요. 지금도 절친하게 지내지만 교리수업에 등록시켜 준 그 친구에게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나를 지탱하고 있는 기둥

❖ 그 친구에게 감사하길 만하군요.

네. 그 이후 지금까지 천주교인 된 것을 한 번도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힘들 때도 괴로울 때도 오늘의 나를 지탱하고 있는 기둥이 신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대에 신앙을 갖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빠르게 세상은 이기적으로 바뀌어 가고 공동의 이익보다 개인의 권리를 우선시하는 지금의 현실에서 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

고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인간의 기본적인 자세인 믿음과 선함, 봉사심이 있는 따뜻한 인간이 될 수 있고 세상의 모든 악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고, 양식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신앙을 갖는 것이 좋다' 이런 취지로 사람들을 전도하는 데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 올해 하반기는 어떻게 보내실 예정인지요?

임명장을 받은 지 불과 반년 남짓 지났는데, 행사의 70%가 상반기에 계획되어 있어서 그런지 시간이 꽤 흐른 것처럼 생각됩니다. '평신도는 교회의 복음증거 사역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평협은 평신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한 봉사자가 되어야 하는데, 때로는 제가 개인적인 일 때문에 한국평협의 공식적인 행사는 물론 인천교구 평협 행사에 모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늘 미안함과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와 달리 변함없이 항상 참석해 주셔서 봉사해 주시는 평협 임원들께는 이 자리를 빌려 재차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관하는 행사마다 크게 변화 없는 반복된 행사임에도 성스러움과 권위 그리고 엄숙한 행사로 집전하시는 주교님을 보면 제가 많은 은총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 앞으로 더 많은 노력과 각오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만남

평신도가 된다

한국가톨릭군종후원회

대담 · 정리
김주완 편집위원



군(軍)은 청년 선교의 황금 어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는 전교의 달인 10월에 군인 주일(올해는 10월 7일)을 지내고, 군의 복음화에 대한 전체 교회의 관심을 집중시키고자 합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평신도 사도직 단체가 바로 '한국가톨릭군종후원회'입니다. 적은 비용으로 많은 청년들을 하느님의 자녀로 초대하고, 군종 신부님들이 매주 후원회원들을 위한 미사를 봉헌해 드리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을 교회로 이끌기 위한 기도와 지원이 절실한 이때 군종후원회의 김진택(토마스 아퀴나스) 회장이 바쁜 가운데에서도 군종후원회의 역사와 여러 활동상을 들려주셨습니다.

❖ '한국가톨릭군종후원회'의 태동 배경과 설립 목적을 들려주세요.

군종후원회는 48년 전인 1970년 1월 13일 서강대학교 학생회관에서 발족식을 갖고 창설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국군에 군종 제도가 도입된 것은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2월이었습니다. 그러나 군종 신부님들은 제도적·경제적 문제 때문에 선교와 사목 활동에 어려움이 많았지요. 그러던 중 1952년 1월 대구 계산동 본당의 청년 연합회가 주축이 되어 '종군 신부 전교 사업 대구 후원회'를 발족하였는데, 이것이 군종후원회의 효시라 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흐지부지되다가 1958년 3월 박희봉(이시도로) 신부님을 단장으로 하는 군종 신부단이 창단되었고, 1968년 5월에는 군인 주일이 제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10월 주교회의 정기총회에서 군종 후원회 발족이 가결되면서 군종후원회는 범교구 단체로서 전국에서 회원을 모집할 수 있게 되었죠.

본회의 설립 목적은 군내에서 군종 신부를 통한 가톨릭 선교 활동을 지원하여 하느님을 알게 하고, 장병들에게 신앙심과 도의심을 바탕으로 하여 애국



▲ 김진택 토마스 아퀴나스 회장



▲ 봉사단원들의 가을 소풍(2017년 10월, 인제 육군 태극 성당)



▲ 판문점 견학(2018년 7월, 경기도 파주)



▲ 남수단 파병 장병을 위한 미사(2018년 2월)



▲ 회원과 장병들을 위한 월례 미사(2018년 6월, 가톨릭회관)

애족하는 참된 군인이 되도록 하는 군종후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각 교구에 설립되어 있는 군종후원회의 조직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1999년 12월 이기현(베드로) 주교님(현 의정부교구장)이 제2대 군종교구장 겸 제6대 군종 후원회 총재로 부임하신 뒤 중앙회 회칙을 현실에 맞게 정비 하셨지요. 이에 따라 '군종후원회본부'는 '군종후원회 중앙회'로, '군종신부단'은 '군종교구'로, '담당주교'는 '총재주교'로 개칭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6월에는 동성고등학교 대강당에서 군종후원회 창립 30주년 기념행사를 성대하게 거행하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군종후원회는 군종 사제의 선교와 사목 활동에 협력하기 위해 설립된 평신도 사도직 단체입니다. 이에 중앙회를 겸하고 있는 서울지부를 비롯하여 광주·대구·마산·부산·수원·의정부·인천·전주·청주 교구에 10개 지부를 두고 있는데, 현재 전국에 약 7만 7,738천 명의 후원회원들이 활동해 나가고 있습니다.

❖ 군종후원회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주요 활동 내용은 무엇인지요?

회원님들께서 보내주시는 후원금으로 군인들을 위한 성전과 교육관, 사제관, 수녀원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에 필요한 성상과 제구를 구입하고, 성경·기도서·교리서·성가책·묵주 등을 지원합니다. 이 밖에도 군 장병들을 위해 필요한 악기, 냉난방기, 영상·음향기기 등을 지원함으로써 군종 신부님과 모든 장병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1970년 9월에 창간한 소식지 『등불』도 현재까지 꾸준히 발행(연 2회)하여 가교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1971년 7월에는 성경 보급 운동의 일환으로 전후방과 파월 장병들에게 『공동번역 신약성서』 2만 부를 배포하였고, 1983년 12월에는 천주교에서



▲ 제48차 전국 총회(2018년 2월, 육군 자운대 성당)



▲ 신임 군종 신부 위문 방문(2018년 6월, 육군 문무대 성당)

는 처음으로 애기봉 성탄수 점화식을 군종후원회 주관으로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 지금까지 해 오신 활동 가운데 특별하거나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다면?

후원회란 보이지 않는 손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겸손한 자세로 묵묵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 JSA 성당 조감도



▲ 종교계 지도자들의 부대 방문(2018년 6월, 평택 해군 2함대)

길을 함께 가고자 하는 전국의 모든 회원 분들이 다 특별하고, 그분들의 활동이 다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근 들어 남북간 평화 무드가 조성되면서 군종 후원회에서도 많은 계획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군종교구에서는 6월 5일 DMZ 안에서 새 JSA 성당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내년 3월 30일이 완공 목표인데, 이 성당은 한국전쟁의 상처 치유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상징합니다. 지난 2월 9일 군종후원회 전국 총회에서 군종교구장 유수일(하비에르) 주교님께서는 “한국 성당 가운데 북한과 가장 가까이 위치해 있고 통일과 민족 화해의 희망을 간직한 JSA 성당을 한국 주교단의 관심과 지원으로 재건축하게 되었다.”고 밝히신 바 있습니다. 총사업비 11억여 원 중 저희 후원회에서도



▲ 성탄 미사 참례 및 군 장병 위로 방문(2017년 12월, 육군 75사단 철마공소)



▲ 국방장관의 감사패 전달(2015년 12월, 국군 중앙 주교좌 성당)

2억 원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새 JSA 성당은 군종교구와 한국 교회의 협력, 군종후원회와 군 당국의 지원이 하나로 뭉쳐진 한반도 평화의 상징물이자 전 세계인이 찾는 순례 명소가 될 것입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과 분단의 아픔을 모르는 세계인들이 많이 방문하여 하느님 사랑을 체험하고 남북의 평화통일을 위하여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내후년이면 설립 50주년이 됩니다. 향후 군종후원회의 계획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군종교구장님께서 올해도 후원 가족과 후원금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하시며 좋아하셨습니다. 저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관심과 후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단체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군인이 존재하는 한, 저희는 군종교구의 한 축으로 후원 가족분들과 함께 꾸준히 기도하며 후원하는, 이 땅의 군인들의 복음화를 지향하는 단체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 **전국의 평신도들을 위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서로 사랑합니다.” 우리 평신도들은 가장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주님의 사랑을 묵묵히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단체라도 주님 안에서 소홀한 단체는 없고, 중요하지 않은 평신도 단체 또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묵묵히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마음으로 생활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사랑하는 마음 또한 함께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총이 함께하실 수 있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조그마한 관심도 군종 신부님들과 모든 장병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나눔

신앙 선조를 움직인 한 권의 책

한국 천주교회가 최초로 채택한 공식 교리서, 《성교요리문답(聖敎要理問答)》

정리
이귀련 편집위원

154개 문답으로 배우는 교회의 근본 교리

박해시대 우리 교회에서 널리 쓰였던 대표적인 교리서 《성교요리문답》은 한국천주교회에서 처음으로 채택한 공식 교리서로 일명 《사본요리(四本要理)》로 불렸다. 중국 교회에 널리 보급되어 있던 같은 이름의 한문본에서 ‘요경육단(要經六端)’과 ‘성교요경(聖敎要經)’을 제외하고 번역한 것이다. 《사본요리》라는 별명에서 알 수 있듯이 네 가지 성사 즉 세례성사와 고해성사, 성체성사, 견진성사를 중심으로 근본 교리에 관한 요점을 설명한 책이다. 근본 교리에 대한 설명을 ‘문답(問答)’이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154개 문항으로 분류하여 문답식으로 풀이하고 있다는 점이 이 책의 특징이다.

1837년, 제2대 조선교구장 앵베르 주교가 한문본 들여와 번역

한문본 《성교요리문답》은 조선교구 제2대 교구장인 앵베르(Imbert) 주교가 조선에 들어오기 전 중국에서 여러 해 동안 선교 사업을 하면서 이용하다가 조선에 들어올 때 가지고 들여와 전교에 이용하였으리라 짐작된다. 앵베르는 조선에 입국하자마자 곧바로 예비신자들이 알아야 할 주요



▲ 성교요리문답 본문

경문 번역에 착수하였고, 《성교요리문답》의 번역도 이때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앵베르 주교는 입국한 지 2년도 못 되어 1839년 기해박해 때 순교하고 말았다. 1860년경 최양업(崔良業) 신부는 ‘보다 정확하고 완전한 교리서의 간행을 준비 중’이라고 보고한 바 있었다. 아마도 이때 번역이 거의 완성 단계에 있었거나 이미 완성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1864년 베르뇌(Berneux) 주교에 의하여 처음으로 간행되었고, 1886년에는 일본 나가사키(長崎)에 있던 조선 교회의 성서 활판소에서도 간행되었다.



▲ 성교요리문답

1864년 초판 이래 70여 년 동안 한국교회의 유일무이한 교리서

《성교요리문답》은 한국천주교회의 교리서 변천사를 연구하는 데는 물론, 교리 용어의 변모 과정과 교회 서적의 한글 번역사를 이해하는 데도 중요한 자료가 된다. 한 권으로 된 이 책은 1864년 초판이 나온 이래 목판 또는 활판으로, 한글 또는 국한문혼용으로 수없이 판을 거듭하였다. 1934년에 새로운 교리서인 《천주교요리문답》이 나오기까지 70여 년 동안 한국교회의 유일무이한 교리서로 사용되었다. 1864년에 목판으로 인쇄된 《성교요리문답》은 다블뤼(Daveluy) 신부가 번역하고, 베르뇌 주교가 감수한 것으로 되어 있다. 최양업 신부의 보고 내용으로 보아 그도 이 책의 번역 작업에 적극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문답으로 배우는 네 개의 주요 성사

《성교요리문답》에서는 은총을 얻는 방법으로 성사를 강조하여 신앙의 실천에 근본이 되는 성사로서 세례성사, 고해성사, 성체성사, 견진성사

네 가지를 다루고 있다. 그중 가장 중요하게 다룬 것은 세례성사이다. ‘영세 문답’에서 70조목에 걸쳐 신자들에게 요구되는 교회의 근본 교리를 제시하면서 천주존재, 강생구속, 원죄와 본죄, 수난과 부활, 영혼불멸, 상선벌악 등을 설명하여 교회와 성사에 관해 상세히 가르치고 있다.

‘영세 문답’이 새내기 신자에게 필요한 주요 교리를 전반적으로 제시한 것이라면, ‘고해 문답’에서는 37조목에 걸쳐 올바른 삶을 통해 하느님과 통교(通交)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자신의 삶을 반성함으로써 새로운 신앙을 계속해서 확인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 이어 ‘성체 문답’ 32조목과 ‘견진 문답’ 23조목에서는 신자들이 추구해 나가야 할 새로운 가치관과 올바른 삶의 형태를 강조한다. 이렇듯 《성교요리문답》에서는 교회의 근본 교리와 실천적 덕목들을 요약해서 전한다.

맺음말

《성교요리문답》이 한국 천주교회 최초의 공식 교리서가 된 것은 이 책이 문답 형식으로 쉽고 간결하게 잘 정리된 교리서이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이 책은 네 가지 성사에 대한 문답을 통해 초월적인 하느님의 존재를 일깨우고, 조선의 백성들이 하느님의 모상에 따라 창조된 인간임을 알려주었다. 신분제에 갇혀 있던 당시의 신자들에게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혼을 가진 고귀한 존재라는 천주의 가르침은 그 자체로 은총이자 굳은 믿음이었다. 《성교요리문답》에는 우리 신앙 선조들의 삶과 믿음이 담겨 있다. ㉠

나눔

신앙 선조의 불꽃 같은 삶

‘하느님의 종’ 권일신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정리
송관희 편집위원



▲ 직암(稷菴) 권일신의 십자가(오른대 한국순교자박물관 소장). 권일신은 1791년 신해박해가 일어나자 천주교의 교주(敎主)로 지목되었고, 홍낙안의 고발로 11월 28일(음 11월 3일)에 체포되었다.

지난해 주교회의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에서는 “하느님의 종 이벽 요한 세례자와 동료 132위”에 대한 시복자료 제1집을 간행하였습니다. 이에 자료집의 내용을 발췌하여 게재합니다. 하느님의 종’ 133위는 모두 평신도로서 자발적 신앙 공동체를 세운 한국교회 초기 신자들은 오늘을 사는 우리 평신도에게 언제나 모범 중에 모범입니다. 그들에 관한 자료를 함께 읽어보면서 ‘평신도 희년’을 맞아 역사를 공부하고 실천하는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례명에 선교의 원의를 담다

권일신(權日身,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1751-1792년) 집안은 이벽 요한 세례자로부터 복음을 전해들었다. 이벽은 복음의 빠른 전파를 기대하며 학문과 명성이 뛰어나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인물을 찾았다. 그가 적임자로 본 집안이 양근(楊根)에 살고 있던 권씨였다. 권씨 집안에는 다섯 형제가 있었는데 일신 이외에 철신(哲身), 제신(濟身), 득신(得身), 익신(翼身)이다. 그 집안은 고려 때부터 고위직에 있었고, 뛰어난 친척들 외에도 그들 곁에서 학문과 덕행을 배우려 전국 각처에서 수많은 제자들이 모여들었다. 이런 이유로 이벽도 그들을 천주교의 뿌리와 기초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1784년 음력 9월, 말을 탄 이벽이 양근 고을 감산에 있는 권씨 집안에 들어섰다. 이벽의 기대에

가장 먼저 부응한 이는 일신이었다. 그는 ‘천주교를 놀라운 열심에다 견식에 근거한 열성을 근거하여 믿었다.’고 한다. 일신은 천주교의 진리를 확신하자마자 스스로 믿기 시작하였으며, 즉시로 집의 남녀 식구들을 가르쳤다. 친구와 친지들에게 천주교를 전하자 그들도 곧 받아들였는데, 이는 그의 명성과 학문과 행실의 권위가 이미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권일신은 특히 선교에 열과 성을 바쳤으며, 이에 양근 고을은 조선 천주교의 요람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는 복음을 널리 선포하는 데 헌신하고 싶은 원의를 담아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성인을 주보성인으로 택했다. 이를 입증하듯 내포 출신으로 형의 제자였던 이존창 루도비코 곤자가, 전주 출신의 유항검 아우구스티노에게 천주교를 전함으로써 충청도와 전라도에 천주교 신앙이 전파

참고 문헌

- 조광, 「신앙 유산, 새 생명에의 초대 - 주교받는 말 속에서 밝혀진 믿음: 성교요리문답」, 《경향잡지》 1992년 4월호, 84~87쪽.
- 한국학중앙연구원, ‘성교요리문답’,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10.
- 한국교회사연구소, 《가톨릭대사전 7》, 1999.
- 주교회의매스컴위원회, 《천주교 용어자료집》, 2011.

되도록 하였다. 1785년에는 명례방(현 명동)의 천주교 모임에 아들 상문과 함께 참석하였다가 형조의 사령들에게 발각되어 형조로 압송되었다. 이때 중인 출신 김범우만 형조에 투옥되고 본인을 포함한 나머지 다수가 석방되자, 아들과 이윤하·이충익·정섭 등과 함께 형조 판서에게 나아가 압수한 성상(聖像)을 돌려주고 김범우와 함께 처벌해 달라고까지 하였다.

샤를르 달레의 『조선천주교회사』에는 이승훈이 임명한 사제들 이름이 나오는데, 그 처음이 권일신이다. 중국교회의 세 기둥(聖教三柱石)으로 서광계, 이지조, 양정균을 지목하듯, 조선교회의 지도층 3인방으로 이승훈, 이벽과 함께 권일신을 꼽는다. 그는 가정적 제도의 독성죄 문제를 문의할 때, 이승훈과 함께 북경의 구베아(Gouvea) 주교에게 편지를 썼다. 당시 밀사는 권일신에게 교리를 배워 입교한 윤유일 바오로였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주교회의에서 출판한 『자료집』에는 교회 기록으로 다블뤼(Daveluy) 주교의 「조선 주요 순교자 약전」과 「조선 순교사 비망기」에 꽤 많은 분량의 자료가 실려 있다. 이 밖에 정부 기록으로 『정조실록』과 『순조실록』, 『승정원 일기』, 『일성록』과

개인 기록으로 『벽위편』과 『수기(隨記)』의 내용을 정리해 놓았다.

“권일신이 형조에 들어와 함께 죄를 받기를 원한 것은 명백한 증거가 되는 일로서 그가 요학(妖學)의 우두머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을사년 이후라도 그가 만약 회개하여 자책하고 정학(正學)으로 돌아왔다면 온 세상이 어찌 이렇게까지 지목하겠습니까?”(『정조실록』)

“죄인 권일신이 소지를 올려 말하기를, 일전의 전술에서 이미 예수의 학문은 요사하고 부정하다는 것으로 공초를 바쳤으니 당연히 남김없이 환하게 아셨을 것입니다.”(『일성록』)

“성상(정조)의 하유를 받으니, ‘권일신이 영원히 사학을 끊고 기꺼이 정도로 향하였으므로 호서 지방으로 내려 보내 마음을 다해 그의 무리들을 깨우치게 함으로써 스스로 힘써 공을 세우는 방책으로 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권일신이 우두머리인데 우두머리가 이와 같으니 추종자들은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권일신의 「자명서」를 성상의 하교대로 이존창에게 보였더니 그가 더욱 깨닫는 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박종악, 『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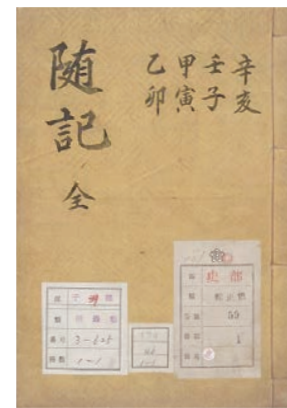
▲ 천진암 성지에 있는 권일신 묘.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대석리, 속칭 효자봉에 있던 그의 묘는 1977년 변기영 문시놀과 오기선 신부에 의해 확인되었고 1981년 11월 21일 천진암으로 이장되었다.



▲ 명례방 공동체(절두산순교성지 소장)



▲ 『정조실록』(규장각 소장)



▲ 『수기』(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 『벽위편』(한국교회사연구소 소장)

“권일신이 배소로 출발하기도 전에 죽었으니 진실로 감화되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게 되었다. 매우 애석하다.”(이만채, 『벽위편』)

“그때 80세의 노모가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바다 저편으로 유배가면 어머니와 헤어져 그 임종도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환기시켰다. 그러면서 배교에 대해서는 직접 말하지 않고 임금에 대한 극히 ‘작은 굴복’만을 권고하였다. 권일신은 이 생각에 절실히 감도되어 그 자신이 또는 어떤 사람들이 단언하는 것처럼 같이 있던 사람 중 하나가 그를 대신하여 어떤 굴복의 표시를 했다.”(다블뤼, 「조선 주요 순교자 약전」)

다블뤼 주교는 이 대목 바로 아래 “우리는 진실이 우리에게 쓰지 않을 수 없게 한 이 페이지를 우리 역사에서 찢어버리고 싶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도 부모에 대한 너무나도 당연한 마음에서 일어난 일이었음을 고려해야 하며, 조선교회의 발전을 위해 애쓴 그간의 행적이 하느님 앞에서 은총을 얻을 수 있기를 희망했다. 이와 관련하여 어떤 구전에는, 애초에 권일신은 “서양인의 교리는 다르다. 공맹의 교리는 나쁘고 올바르지 않

다(西洋之學異 孔孟之學 娛誕不正).”라고 썼으나, 단 한 글자 ‘어(於)’가 추가되어 왕에게 올려졌다. 그 바람에 “서양인의 교리는 공맹의 교리와 완전히 달라서 나쁘고 올바르지 않다(西洋之學 異於孔孟之學 娛誕不正).”로 전달되었다는 것이다.

세 부류의 기록들 모두 권일신이 천주교를 믿고 앞서서 교리를 가르치고 전파했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초점은 그의 마지막이 어땠느냐는 것이다. 회오했다는 쪽과 설사 겉으로는 그리 보였을 수 있지만, 끝까지 한마음이었을 것이라는 쪽이다. 모든 사건이나 기록에는 보여지는 면과 보이지 않는 면이 있다. 환하게 드러나 있기에 보이는 것과 가려져 있기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으며, 보일 듯 보이지 않는 의미와 보이지 않을 듯 보이는 의미도 있다. 그러니 무엇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언어의 틀’에 갇혀 순교와 배교를 가리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하느님의 시선’에 그를 맡기는 것이다. 표면만을 볼 수밖에 없는 우리의 눈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까지 꿰뚫어 보시는 주님의 시선에 말이다. 하느님의 크신 은총 안에서만 시비(是非)가 가려질 일이다. ㉠

나의 신앙 선조

참된 수도자, 어머니

김경희 켜마 / 성바오로딸수도회 수녀



수도회에 들어와서야 알게 된, 내 가장 소중하고 유일한 재산은 신앙입니다. 수녀가 된 후에야 어머니 배 속에서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심어 주셨던 신앙이 얼마나 큰 유산인지 부모님께 감사드리게 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병원 신세를 졌기에 어머니는 늘 내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기적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런 아이가 결혼할 생각은 않고 혼기가 짙은 나이에 수도회에 가겠다고 말씀드렸던 어느 날, 아버지는 화를 내셨고 어머니는 섭섭해 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선 종종 주위 분들께 ‘엄마 마음 알아주는 똑똑하고 착한 둘째 딸’이라고 말씀하곤 하셨으니까요.

외가는 순교자들이 박해를 피해 그릇을 구우며 모여 살던 그런 터전에서 오랫동안 신앙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만나 뒤늦게 신앙을 가지셨지만 새벽마다 매일미사를 참례하셨고, 삼종기도와 아침기도와 저녁기도를 빠뜨린 적 없었습니다. 두 분 모두 열심한 분들이셨습니다. 주일 미사를 빼먹는 건 생각조차 못할 일이었고, 성탄 자정미사를 한 번도 빠진 적 없는 철저한 신앙생활에 식구 중 어느 누구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외가엔 이미 사제와 수도자가 여럿 있던 터였고, 어머니께서도 늘 입버릇처럼 자식 네 명 중에 하나라도 주님께 봉헌하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말씀하셨기에 내가 수녀원에 가는 건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녀원 입회 이야기를 꺼냈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 모

두 반대하셨습니다. 물론 그 반대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모태 신앙이라 교리나 성경에 대해 아는 게 없었던 나에 비해 함께 수녀원에 입회한 자매들 가운데는 자신이 신앙을 선택하고 받아들인 이들이 있었습니다. 간혹 그들이 들려주는 세례의 체험이 부럽기도 했습니다. 모태 신앙인이라며 뭔가 주인 행세를 하고 싶었지만, 사실 내게는 별다른 게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해 준 것도 수도원 입회 후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나에게는 교회 지식도 주님과 의 짜릿한 만남의 추억도 없지만, 가장 크고 중요한 게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내 몸과 마음 깊숙이 들어와 나의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정신이 된 ‘신앙’입니다. 사실 이 신앙은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다가도 위기의 순

간이나 고통과 어려움의 순간에 그 가치를 드러냅니다.

어릴 적 친구들과 놀지 않는 날이면 집에서 보자기를 이마에 둘러 묶어 기다란 베일을 만들고 마치 수녀님이라도 된 듯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얹전히 무릎 꿇고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사실 기도라기보다는 대화였는데, 그러고 보니 그것이야말로 진짜 기도였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냥 예수님께 이 말, 저 말, 속상한 일, 혼난 일, 기뻐했던 일들을 쏟아내고는 마치 예수님 대답이라도 들은 양 주고받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언제나 큰일을 앞두고 있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어머니는 십자고상과 성모님 앞에 초를 켜고 9일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중풍으로 쓰러지셨을 때, 우리들이 대입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군대에 간 오빠를 위해,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 언니를 위해, 그리고 막내 글라라가 결혼을 앞두고 있을 때면 어머니는 언제나 벽에 걸린 커다란 묵주를 꺼내 묵주기도를 하시며 성모님과 예수님께 의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사, 그리고 주님의 뜻을 그대로 따를 수 있도록 해주십사 기도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9일 기도를 하실 때면 늘 옆에 있는 우리 네 남매에게 같이 하자곤 하셨는데, 가만히 앉아 끝도 없이 반복되는 성모송을 바치는 게 지루했던 우리는 저마다 슬쩍 방을 빠져나가곤 했습니다. 나 역시 빠져나갈 궁리를 했지만, 결국 어머니와 함께 9일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처음엔 9일 기도라고 하니깐 9일만 하는 줄 알고 9일만 지나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9일 기도가 실상은 54일 기도라는 것을 안 후엔 이미 그만둘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하루라도 빼먹으면 처음부터 다시



▲ 종신서원 때 부모님과 함께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매번 기도를 잊어버린 척 “오늘 내가 9일 기도를 했나? 안 했나?”하시며 나를 하는 수없이 기도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나는 어느새 달력에 9일 기도를 표시하며 어머니와 함께 54일의 여정을 걷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기도하게 하는 어머니만의 방법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따라 가장 기쁘게 했던 기도가 있었는데 바로 ‘연도’입니다. 어릴 적부터 어머니의 연도 소리에 목소리를 맞춰 기도했던 시간들은 나를 자연스레 죽은 이들의 통공으로 연결해 주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일이면 으레 연미사와 연도가 시작됩니다. 9일 기도와 다르게 연도를 할 때면 어머니는 하얀 종이를 깔고 십자고상과 성모상을 모시고 초에 불을 키셨습니다. 그런 날은 연도를 하는 날입니다. 연도의 슬픔과 기쁨이 뒤섞인 구성진 노랫가락이 좋았고, 연도 특유의 꺾는 소리가 신기했던 기도였습니다. 어쩐지 슬프면서도 힘찬 외침 같았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영혼들의 외침!

어머니께 받은 선물 중 또 한 가지는 바로 신앙과 짝을 이루는 ‘인내’입니다. 아프고 힘들 때

모든 걸 주님을 위해, 그리고 다른 누군가를 위해 바치는 어머니의 삶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동생 글라라가 결혼을 앞두고 있을 때, 가족들과 결혼 준비와 제부가 될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한창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결혼 자금 때문에 정신 없으신 어머니께 위로도 해드리고 응석도 부려볼 참에 어머니 가슴을 만졌는데, 달걀만한 크기의 몽우리가 단단하게 어머니 가슴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놀라 어머니께 병원에 가보셨느냐고 여쭙었더니 어머니 아무렇지도 않은 듯 대답하셨습니다.

“응, 글라라 결혼식 끝나면 가려고.”

어머니 고집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병원 얘기는 드리지 않았습니 다. 그러나 그날 밤은 밤새도록 엄마 생각에 흐르는 눈물을 닦느라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유방암의 고통을 겪으며 사셨고, 후에 항암치료로 쇠약해진 엄마의 육신은 온전히 하느님께 바쳐진 봉헌이었습니다.

엄마를 닮아 그런지 아픔을 참는 거 하나는 자신 있다고 늘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인간이 자랑할 게 없습니다. 입회 후 두 달이 되기도 전에 기침을 하기 시작하더니 세 달이 넘도록 멈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입원을 하고 병명도 모른 채 이 병원 저 병원을 다녔습니다. 지원기 때부터 청원기까지 그렇게 이름 모를 병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년째가 되어서야 수술을 통해 병명이 드러났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 몸은 약과 함께 지내고 있지만, 제게 이 병은 수도 삶에 없어서는 안 될 동반입니다. 수술 네 번, 교통사고를 두 번 견딘 제 육신은 어머니로부터 받은 신앙과 인내, 그리고 기도로 더 단단해졌습니다. 처음엔 병을 허락하신 주님을 원망했고 매일매일 그분께 화를 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삶을 허락하신 그분께서 병든 육신도 함께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니, 이런 육신이기에 수도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내게 육신의 고통이 없었다면 아마도 수도 삶을 지속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나의 끝도 없는 교만과 자만은 다행히 병으로 인해 조금씩 닦여지고, 육신의 고통으로 하느님과 더 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었으니, 이보다 더 큰 선물이 또 어디 있습니까!

처음 입원을 위해 병원에 가려고 수도원 문을 나서려는데, 낮익은 얼굴이 수도원을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동생이었습니다. 연락도 없이 갑자기 온 터라 놀라서 어떤 일이냐고 물었더니 엄마가 수녀원에 좀 가보라고 하셨습니다. 간밤 어머니 꿈에 제가 병원 옷을 입고 나타났답니다. 어디 아프냐고 물어도 제가 아무 말 없이 그냥 서 있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어디가 아픈 게 틀림없다 생각하시고 동생을 보내 알아보게 하신 겁니다. 짐짓 놀라며 동생에게 지금 밖에 나가 일해야 한다며 무슨 소리냐고 다그치고는 서둘러 동생을 보냈습니다.

하느님 다음으로 나를 아시는 분, 나의 어머니! 유방암과 치매, 그리고 온갖 병과 함께 살아가시는 어머니의 딸이기에 저 또한 그 선물을 살아갑니다. 고통이라고만 생각한 그것이 나를 주님께로 이끄는 기쁨의 사다리, 십자가임을 알았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 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교의학 박사보다 더 완전하게 어머니는 제게 주님과 교회를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 없이도 주님의 말씀과 삶을 따르는 어머니, 오늘도 묵주를 쥐고 수녀 딸보다 더 깊이 세상 안에서 참된 수도자로 살아가시는 어머니께 감사하며 어머니의 남은 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어머니의 딸로 태어나 참 행복합니다.

주님은 찬미 받으소서! 

사도직 평신도의 꿈과 희망

내가 너를 뽑아 세웠다

이정희 마리아 / 전주교구 중앙 주교좌성당 사목회장



필자 이정희

나는 5대째 구교 집안에서 태어났다. 아름답고 오래된 성당, 전동성당에서 유아세례를 받았고, 전주교구 주교좌성당인 중앙성당의 전신인 대동성당일 때부터 여기 다니고 있다. 어렸을 때 초과 만과를 어떻게 하면 빼먹을까도 궁리했고, 기도하다 꾸벅꾸벅 졸아 엄마한테 머리를 맞던 때가 바로 엇그제 일 같다. 구교 집안의 자식으로 서 주일에 미사를 가지 않으면 큰일 중의 큰일이었다. 그래서 주일날 미사를 꺾하지 않는 시계추 같은 신앙생활이 이어졌다.

결혼 후엔 집안일과 애들 뒷바라지에 겨우 주일을 지키는 그야말로 발바닥(?) 신자였다. 그러던 나에게 김동준 야고보 주임신부님께서 전례부장을 맡아달라고 제안하셨다. “아이고! 신부님, 저는 아는 사람도 없고 제가 어떻게 해요.” 하니 신부님께서 “마리아는 할 수 있어.” 하셔서 순명하는 마음만 갖고 전례부장을 하게 되었다. 주일미사만 겨우 하던 내가 매일미사를 참례하면서부터 나름 신앙심도 생기는 것 같았다.

전례부 일을 맡아 재미도 생길 즈음에 신부님께서 여성부장을 맡아 하라고 하셨다. 일단 못한다고 거절하기 위해 생각나는 핑계로 남편을 내세우기로 했다. “신부님, 라우렌시오에게 물어볼

게요,” 했더니 “물어보지 마!” 하시고는 전화를 끊으셨다. 이때부터 양심은 나를 질책하기 시작했다. ‘너 나빠, 언제는 애들 학교 자모회장할 때 남편한테 물어봤느냐? 순명하는 마음으로 한다고 할 걸. 왜 나는

단번에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이루어지소서! 가



▲ 김선태 주교님 착좌식

안 되나,' 자책까지 했다. 그런데 신부님의 전화가 다시 오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다 꼭 한 달 만에 “생각해 보았느냐?” 하시기에 숨 돌릴 틈도 없이 “할게요, 모르는 건 물어보면서 할게요.”라고 응답했다. 주교좌 본당인 중앙 성당의 여성부장으로 첫 임무는 사제성화의 날 사제 50주년 기념 행사를 주관하는 일이었고, 평소 존경하던 지정환 신부님의 금경축 잔치를 준비해 드리게 되었다.

김동준 야고보 신부님은 이번에는 사목회 부회장이란 중책을 맡기시고는 새 부임지로 떠나셨다. 이때부터 나는 점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의 성령께서 이끄시고 계심을 몸소 느끼기 시작한 것 같다. 그 뒤 교구 여성연합회 정기총회 때 교구 여성연합회 부회장으로 임명되어 봉사하였다. 그로부터 4년 후 13대 회장 임명을 앞두고 이금재 마르코 담당사제께서 회장을 맡아 달라 제안하셨을 때, 겁이 나서 성체 조배실에서 이 잔이 비어가기를 눈물로 기도하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겨울, 전주에 눈이 엄청 와서 밤 사이에 얼어붙었는데, 미사해설에 늦을까봐 뛰어나가다 미끄러져 뒤로 넘어져서 정신을 잠깐 잃었다. 그러나 혼자 다시 일어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미사에 늦지 않게 갈 수 있었다. 이 상황을 남편 라우렌시오에게 얘기했다. 전에 신부님께서 교구 연합회장 제안하신 일과 오늘 넘어진 일을 말하며 “내가 살아 있는 것은 하느님의 일에 봉사하려고 살려 준 것이니 아무래도 일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아무 반응을 하지 않던 남편이 사흘째 되는 날 “하러거든 잘해!”라고 했습니다.

연합회장을 하는 동안 집안일에 소홀할 때도 단 한 번 불평하지 않았고, 이런저런 행사를 끝낼 때마다 “잘했냐? 잘하라.”는 말로 곁에서 응원해주었다. 연합회 회장을 하는 동안은 하느님께 사랑을 받은 시간이었으며 행복했다.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우리나라에 오셨을 때 꽃동네에서 알현하는 영광을 가졌다. 또한 2017년 전주

교구 김선태 사도 요한 주교님의 착좌식에서 교구 여성신자를 대표하여 꽃을 걸어드릴 때의 가슴 벅찬 경험은 잊지 못할 것 같다. 5년간 교구 여성연합회 지도신부님이셨던 이태신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님의 지도로 교구 여성들을 위한 행사 피정 교육을 이끌었고, 40명을 인솔하여 미국 서부 여행과 멕시코 과달루페 성모성지 순례를 다녀왔다. ‘사제와 함께.’라면 걱정이 없다며 맘으로 사제를 얼마나 의지했는지 모른다. 신부님 동행 없이 다낭 성모님 성지 순례 갔을 때는 은근 두려움이 있었는데, 마침 인천교구에서 파견된 신부님께서 우리 일행을 자끼우 성당과 성모님 발원지 라방으로 안내해 주셨다. 거센 빗속에 라방 성모님께 둘러서서 묵주신공을 바치며 “내 자녀들아! 아무 걱정 마라. 엄마가 여기 있다.”는 라방 성모님의 메시지를 가슴에 담아왔다. 베트남 다낭서 귀국하던 그 길로 새 주교님과 함께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의 김치를 담가서 나누어 주었던 일, 세계 순례대회 봉사하던 일 등 내 일상은 기도와 순례, 그리고 봉사가 연결고리처럼 이어지고 있었다.

교구 여성연합회장 임기 5년을 마치면서 이제 대표로 하는 일은 끝나나 싶더니 본당에서 사목회장이라는 막중한 일을 맡게 되었다. 우리 본당은 주교좌 본당으로서 완고함이 남아있는 성당이다. 김원중 안토니오 주임신부님께서 사목회장을 맡아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셨을 때 어안이 병병했다. 김 신부님께서 사목회장을 뽑을 때, 성당 뒤편에 함을 놓고 사목회장 후보 추천과 그 이유를 적어 넣게 하셨다. 많은 분들의 추천 사유 중 ‘이정희 마리아는 하느님과 신부님께 순명한다.’가 가장 많았다고 한다. 선친께서 본당에서 사목회장을 역임하셨던 것도 이유가 되었을 것이다.

그 무렵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실정으로 온 국민이 촛불을 들 때였다. 잘하면 좋겠지만, 못하면



▲ 이주민가족 성금전달식



▲ 이병호 주교님 착좌기념일 축하



▲ 본당 70주년 기념식 때의 이해인 수녀님

‘여자가 그렇지 뭐,’ 할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주님께 먼저 기도하고 선친들의 신앙생활을 기억하며 신부님께서 사목하시는 데 도와드려야겠다는 마음으로 감히 수락했다. 이렇게 김원중 안토니오 신부님은 나를 사목회장으로 임명하시고 새 부임지로 떠나셨다. 김준호 십자가 성 바오로 주임신부님께서 새로 부임하셨다. 신부님의 사목방침을 인지하지도 못할 즈음 막내딸이 출산하여 산후조리를 돕고자 미국으로 가야 했다. 한 달 만에 돌아오니 그 공백이 너무 컸던지 사목회장인 내가 뭔가 뒤처지고 있다는 위축감이 들었다. 시작도 하기 전에 큰 장벽이 앞을 가려 캄캄한 밤에 견딜 수가 없었다. ‘여기까지인가! 그만둔다고 해버릴까?’ 만감이 교차할 즈음에 부활을 맞았다. 큰 돌을 치우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네가 나를 좀 도와다오.” 하시는 말씀이 들려왔다. 이렇게 장벽이라는 큰 돌을 밀쳐내고 부활을 잘 맞을 수 있었다. 신부님과 엠마오를 다녀오면서 ‘하느님과 신부님께 순명하자.’며 초심으로 돌아가 마음을 다잡았다.

작년은 우리 본당 설립 70주년, 주교좌 설정 60주년이 되는 해였다. 이해인 수녀님과 김정식 로제리오의 노래와 시의 만남, 뮤지컬 베드로 초청공연(2회), 바자회, 성가대 기념음악제를 하며

주교님을 모시고 70주년 기념미사를 봉헌했다. 올해는 바자회 수익금을 종잣돈으로 하고 신임을 받아 본당의 천장, 성체조배실, 레지오회관 보수공사와, 냉난방 전면교체를 하여 깨끗이 단장하였다. 이 많은 행사를 치르면서 우리 본당 식구들에게 감사했고, 공동체의 힘으로 못할 것이 없음도 깨달았다. 그리고 2018년 여름 초·중·고 신앙학교 및 전신자 성지순례를 일본 나가사키로 가기로 하여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65년 전 부모님께 안겨 유아세례를 받았던 나 이정희 마리아가 하느님을 향한 끈을 놓지 않고 부르심에 응답하여 오늘날 주교좌본당의 사목회장 및 교구 평단협 부회장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부여받아 수행하고 있다. 주님께서 뽑아 세우실 때마다 두려움이 컸지만, 나에겐 앞서 걸으셨던 부모님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기에 넘어졌다가도 다시 딛고 따르기 쉬웠다. 근검절약하며 평생을 사셨으나 성당을 짓는 일이라면 앞장서서 기부하셨으니, 지금도 천호 부활 성당, 작은 자매의 집 성당, 만경 성당, 치명자산 성직자모지를 가면 그분들을 뵈을 수 있을 것 같다. 저도 당신을 닮고 싶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불러 세우시는 나의 하느님... 

주보성인과 나

사도 요한



송재리 사도 요한 / 공인회계사

나는 1995년 12월 도봉구 방학동 성당에서 사도 요한으로 세례를 받았다. 41세의 늦깎이 신자였다. 아내와 두 아이는 이미 가톨릭 신자였다. 가족 중 막내로 신자가 된 것이다. 아내와의 결혼이 나를 가톨릭 신자로 이끌었다. 내 본가 쪽은 거의 개신교 집안이다. 나도 개신교 계통의 고등학교를 졸업하여 기독교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으나 교회에는 나가지 않았다. 1970~80년대 민주화운동시기 가톨릭교회의 역할에 감명을 받은 나는 가톨릭 교회에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마음속으로 종교를 갖게 된다면 가톨릭으로 선택할 생각이었다.

집안 식구의 소개로 아내를 만나 1986년 결혼



▲ 혼인성사

했다. 아내는 천주교신자였고 결혼을 하려면 성당에서 정한 절차를 밟아야 했다. 그래서 아내가 다니는 군산의 성당에서 신부님 면담을 하고 혼인성사를 받았다. 면담 설문지 항목에 있는, '앞으로 성당에 다니겠다.'는 약속 부분에 대하여 신부님께서 답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셔서 부담을 느끼지 않았던 기억이 있다. 그때의 신부님은 얼마 전에 사제수품 50주년을 맞으신 전주교구의 박진량 라우렌시오 신부님이시다.

결혼 전 서울과 군산을 오가며 만나던 시절이 있었다. 아내는 서울에 오면 외삼촌댁에 머물곤 했다. 어느 날 외삼촌댁에서 저녁식사를 하던 중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제가 머지않아 성당에 꼭 다니겠습니다." 하고 호언하였다. 그러나 결혼 후 성당에 가겠다는 약속은 한동안 지켜지지 않았다. 아내는 혼자 열심히 성당에 다녔다. 집에서 성당까지 대중교통이 불편했던 광명시에 살 때, 아내를 성당에 태워다 주고 미사가 끝날 즈음에 두 아이와 마중 나가 아내를 데리고 오곤 했던 기억이 난다. 방학동으로 이사 와서 아이들도 성당에 다니기 시작하였다. 나는 그때도 아이들을 주일학교에 보내고 데려오는 일로 성당 앞까

지만 열심히 다니고 있었다.

결혼 후 한 번도 성당에 가자고 하지 않던 아내가 1995년 초에 예비신자 교육을 권하여 교육을 받았다. 교육은 유익하고 재미있었다. 교육기간에 난 성경을 열심히 읽었고, 교육시간에 빠지지 않고 출석했던 기억이 난다. 세례받기 전 신부님 면담이 있었는데, 차가운 겨울밤에 당시 가건물이던 성당 밖에서 한참을 추위 속에서 기다렸다. 근처 연립주택에 기거하시던 신부님이 웬지 나오시지 않았던 것이다. 그냥 터덜터덜 걸어 집에 돌아오며 이것도 하느님의 뜻인가 보다 하며 비약했던 일이 있었다. 사실 그때까지 천주교 신자가 되는 것이 서구문화를 받아들여 나에게 있는 우리 고유의 토종 정신문화를 잃는 게 아닌지 하는 마음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후에 신자생활을 하면서 천주교가 우리 전통과 조화를 잘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다음 교육시간에 신부님이 지병인 허리디스크가 도져서 나오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며 다시 면담 약속을 잡았다. 면담에서 신부님께서 "가족이 모두 신자네요." 하시며 교육기간 중 하느님의 존재에 대한 신비한 느낌을 받은 게 있는지, 어떤 점이 인상적이었는지를 질문하셨다. 그런 특별한 경험이 없었던 나는 성경, 특히 구약의 역사서 부분을 재미있게 읽었다고 말씀드렸다. 신부님께서 신비한 경험의 예를 한두 건 드시며 앞으로 체험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다. 세례명은 박진량 신부님께 부탁드렸다. 박 신부님은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던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라."며 그렇게 정해주셨다.

세례 후 나의 신자생활은 본당 미사참례와 소공동체모임이 중심이었다. 주일미사는 꼭 참석하려고 노력하였다. 휴가 중이나 아이들 방학 중 지방에 여행을 가셔도 꼭 그 지역의 성당에서 주일미사를 드렸다. 양양 성당에서 미사 후 어깨를 툭 치며 "언제 이사 왔어?" 하고 친근하게 말을 걸었

던 나이 지긋한 교우가 생각난다. 교우란 것만으로 그렇게 살갑게 대해 주던 그가 정겨웠다. 그때 여행 중 주일에 그 지방의 성당에서 편하게 미사드릴 수 있는 천주교가 매우 좋았다. 소공동체모임에서 처음에는 어색했으나 선배 교우들의 배려로 곧 적응할 수 있었다.

영세 후에 바로 독서봉사를 시작하여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처음 독서 때에 무척 긴장했던 기억이 난다. 독서봉사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가끔 긴장될 때가 있다. 그 후 세대주 모임 구역장과 사목회의 임원을 맡아 활동했다. 그러나 이제와 생각하니 마음속에 돈독한 신앙을 키우기보다 외적인 활동에 더 치우친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가톨릭 신자로 살아오면서 나의 주보성인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어떤 점을 본받을지를 깊게 고민하지 못했다.

이 글을 준비하며 '주보성인과 나'라는 주제를 성찰하기 위해 사도 요한은 어떤 분인가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되새긴다.

"요한 사도는 열두 사도 중에 가장 어렸고 가장 오래 사셨으며,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로 표현됩니다. 형님이신 야고보 사도와 함께 그물을 손질하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되셨습니다. 요한 사도는 예수님의 중요한 행적에 늘 함께하셨으며, 예수님이 수난 당하실 때 십자가 형장에 따라가 예수님의 임종을 지킨 유일한 제자입니다. 특히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이 '이분이 네 어머니시다.'라고 하시며 요한 사도에게 성모님을 맡기셨는데, 이를 통해 자녀들의 모범을 보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일 먼저 빈 무덤으로 달려갔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보고 베드로 사도에게 알리셨습니다.

성령 강림 후에는 베드로 사도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활동하며 초대 교회의 건설



▲ 영세식

과 복음 선포에 힘썼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이런 요한 사도를 베드로, 야고보 사도와 함께 '교회의 기둥'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성인께서는 에페소에서 활동하셨고, 로마 황제의 박해를 받아 섬으로 귀양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묵시록을 저술하고, 황제가 사망하자 에페소로 돌아와 요한복음과 요한서간을 저술했다고 전해집니다. 형님이신 야고보 사도는 제일 먼저 예루살렘에서 순교하신 반면, 요한 사도는 열두 사도 가운데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선종했다고 전해집니다.”(〈가톨릭굿뉴스〉 '성인자료실'에서 발췌)

요한 사도의 삶을 살펴보면 인상적인 점이 두 가지 있다. 먼저 사도께서는 믿음이 깊고 부지런한 분이셨던 것 같다. 예수님의 중요한 행적에 늘 같이하셨고, 부활 때에도 가장 먼저 무덤에 가셨으며, 복음과 서간 및 묵시록을 저술한 사실은 성인의 부지런함을 증명한다. 두 번째는 침착함과 온유함이다. 사도 중 가장 젊었던 분인데 순교하지 않고 선종하신 면을 보면, 웬만한 일에 흥분하

지 않고 사람과 만날 때나 어떤 일을 처리할 때 부드러움으로 임하신 듯하다.

나는 세례 이후 주보성인을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다. 평소 게을렀던 나의 삶을 반성하고 이제부터 요한 사도의 신심과 부지런함, 그리고 온유와 침착성을 본받고 싶다. 앞으로 요한 사도의 삶을 따를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다. 

작가를 감동시킨 작품

Vanitas Vanitum : 헛된 것들의 헛됨

임선혜 아녜스 / 성악가

마리아 막달레나의 오라토리오라고 불리는 헨델의 첫 번째 오라토리오 〈시간과 깨달음의 승리〉
아리아 〈울게 하소서〉의 원작이 담긴 첫 오라토리오



▲ 그림1

프랑스 바로크 화가인 '드 라 투르'(Georges de La Tour, 1593-1653년)의 유명한 작품 중의 하나인 "회개하는 마리아 막달레나"(The Penitent Magdalen, 1640년경).  뉴욕 현대미술관(The Museum of Modern Art)에 전시되어 있는, 가

로와 세로 길이 1미터가 넘는 이 강렬한 그림은 '촛불'을 자주 사용하여 명암(chiaroscuro)을 강조하는 그의 특유의 스타일이 잘 나타난다. 모든 세상 것을 버리고 귀한 하늘의 것으로 향하는 아름다운 막달레나의 옆모습. 그 뒤로 보이는 허황됨의 상징인 거울, 그녀의 무릎에 놓인 세상의 한계 즉 인간의 죽음을 나타내는 해골, 그리고 아마도 그녀의 영적 깨달음을 상징했을 촛불이 허황됨의 상징인 거울에 비추어 두 개로 나타나 그녀의 옆얼굴을 흰히 밝힌다. 촛불과 그림자의 대조, 지극히 기하학적인 구조감, 그리고 명상적인 분위기가 카라바조를 계승한 그의 그림의 성격을 잘 나타낸다.

고향이 막달라여서 막달라의 마리아, 마리아 막달레나로 불리는 그녀는 성경에서 자기 몸에 들린 일곱 마귀를 뽑아 준 예수를 존경하여 자신의 재산으로 그 일행을 돕고 따르던 여인들 중 하나로, 예수의 십자가 위 죽음과 무덤에 묻힘, 빈 무덤, 그리고 부활을 옆에서 함께 한 산 증인으로 나타난다. 특히 예수가 부활한 후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처음으로 나타남으로써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된 그녀는 이를 사도들에게 알리기 위해 보내졌다. 이로 인해 그녀는 초기 그리스도 공동체에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부활 이후의 그녀의 행적은 성경 상에서 사라졌고, 교회사에서조차 오랫동안 특유의 많은 전설들로만 전해져온 그녀의 이야기는 종종 예수의 발에 눈물을 떨어뜨리고 긴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향유를 바른 베타니아의 마리아와 동일시되기도 했다. (그래서 종종 그녀는 자신의 성화에서 향유병을 든 모습으로 그려졌다.) 또 (그녀의 출신지인 갈릴래아 호수 서쪽 연안의 '막달라'가 염색업과 직물업이 발달했던 도시로 도덕적으로 부패한 곳이었다는 데서 기정난 것인지) 루카복음에 나타난 '용서받은 죄 많은 여자'

인 창녀였던 다른 마리아와도 동일시되어 매춘부 출신으로 쾌락을 탐닉하다가 예수를 만나 회심한 여자라고 전해졌다. 교황 그레고리오 1세도 591년 마리아 막달레나가 창녀였다고 강론하는 등, 이후 1988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사도들의 사도'로 다시 격상될 때까지 1400년 가까이 그녀는 매춘부로 잘못 알려져 왔다.



▲ 그림2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마리아 막달레나는 예수를 만나 자신의 죄를 용서받은 여인으로서 '회개(통회)와 관상의 이상적인 모델'로 여겨져 왔다. 실제로 유수의 화가들이 이런 모습

의 성녀를 그림으로 표현했는데, 그렇게 탄생한 유명한 작품들 중 하나가 바로 드 라 투르의 '회개하는 마리아 막달레나'이다. 화가 드 라 투르에게 강한 영감을 준 이탈리아의 바로크 거장 카라바조(Michelangelo Merisi da Caravaggio, 1571-1610년) - 실제로 드 라 투르는 작품의 앵글과 몇몇 작은 것들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스승 카라바조의 막달레나를 아낌없이 따랐다 - 역시 많은 논란이 된 '회개하는 막달레나'(Maddalena Penitente, 1594-1595년) **그림2**라는 유명한 작품을 남겼다. 이는 헨델로 하여금 그의 첫 오라토리오를 쓰게 한 대본가이자 추기경이었던 베네딕토 팜필리(Benedetto Pamphili, 1653-1730년)의 로마 팜필리가(집안) 저택 갤러리(Doria Pamphilj Gallery)에 소장되어있다.

추기경이자 당시 로마 예술계, 특히 음악인들의 든든한 후원자던 베네딕토 팜필리는 스스로 많은 종교적 소재의 대본을 쓰고 스스로 작곡도 하였다. 알렉산드로 스카를랏티, 카를로 체사리니 같은 당시 유명한 작곡가들이 그의 대본에

곡을 붙여 세상에 내놓곤 했다. 1706년, 드디어 21세의 헨델은 예술적 영감이 넘친다는 이탈리아를 방문하게 되었고, 그의 재능을 알아본 팜필리 추기경은 바로 그에게 후원을 약속한다. 그들의 만남은 이듬해 헨델과 첫 오라토리오를 함께 쓰는 결실을 보는데, 이것이 바로 헨델의 첫 오라토리오 작품인 <시간과 깨달음의 승리>이다. 이 작품은 Bellezza(미, 아름다움), Piacere(쾌락, 즐거움), Tempo(시간), Disinganno(계몽, 깨달음)를 각각 이름으로 의인화해서 이들의 도덕적 윤리적 논쟁을 극적으로 다룬 오라토리오이다. 이 흥미로운 소재와 음악적 구성으로 하여금 종종 연출이 붙여져 오페라처럼 공연되기도 한다.

(1부) 거울을 보며 젊고 아름다운 자신을 감탄하지만, 언젠가는 다 늙어지고 변할 것을 걱정하는 아름다움에게 즐거움은 자신에게 충실하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한다. 이런 그녀에게 나타난 시간과 깨달음은 지금의 아름다움이 꽃과 같아서 한순간 예쁘다가 죽고 마는 것이라 말한다. 이때 우아한 젊음이 매혹적인 음악(오르간 소나타)으로 모든 감각적인 아름다움을 떠오르게 하자 아름다움은 시간도 자신의 즐거움을 결코 빼앗을 수 없다고 확신한다. 하지만 두 조언자는 끝이 있는 지상의 삶을 인정하기 싫다면 다가올 영원함 속에서는 어떻게 살아남을지 생각해 보라고 조언한다.

(2부) 아름다움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두려움을 느낀다. 시간과 깨달음은 진정한 즐거움이 세상의 것과는 비교가 안 된다고 하며 늦지 않았으니 결정하라고 한다. 정의로운 이들의 눈물은 하늘에서는 진주와 같게 된다는 깨달음의 눈물에 대한 가르침에 즐거움은 '가시는 두고 장미만 꺾으라'(울게 하소서 의 원곡), '너는 지금 네 고통만 찾고 있는 거야'라고 경고한다. 하지만 진실의 거울을 마주할 결심이 선 아름다움은 빛을 달라고 청

하며 즐거움에게 작별을 고한다. 마침내 '진실의 거울'을 보며 자신의 추잡한 실체를 본 아름다움은 멀리 가서 혼자 살 것을 결심한다. 진심으로 회개를 바라는 아름다움이 하늘의 수호천사들에게 구원을 청하는 기도로 오라토리오는 조용히 끝을 맺는다.

주인공 아름다움이 내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그린 이 작품은 바로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를 모델로 했다는 음악학자들의 주장과 논리가 끊임없이 있어 왔다. 이는 당시 가톨릭 교의에서 강조했던 '회심'이라는 주제와 맞물리는데, 베네딕토 팜필리 추기경도 이에 관한 대본을 많이 썼다. <탕자 - il figliuol prodigo>, <은총의 승리 또는 막달레나의 대화 - Il trionfo della gratia ovvero la conversazione di Madalena> 등이 대표적이다. <은총의 승리>는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마리아 막달레나가 회개(Penitenza)와 젊음(Gioventù)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회심하는 이야기이다. <시간과 깨달음의 승리>처럼 회개나 젊음을 의인화한 것과 더불어 줄거리에서도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어 주인공 아름다움이 바로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를 모델로 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또 내려오는 전승에서 마리아 막달레나가 몇몇 여인들과 함께 먼 곳으로 떠나 아무도 살지 않는 동굴로 사라졌다는 이야기와도 흡사해서 곡을 알면 알수록 이것이 그녀를 주제로 한 오라토리오라고 설득당하게 된다. 헨델이 이 곡을 작곡한 지 20여 년이 지나 작곡가 카를로 체사리니(Carlo Cesarini)도 같은 대본에 <후회하는 아름다움에의 시간의 승리 - Il trionfo del Tempo nella Bellezza ravveduta>라는 오라토리오를 썼다. 그 음악은 유실되었지만, 대본과 북 클렛 표지 **그림3**가 남아서 헨델의 인물화된 네 역할들의 세팅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남았다.

5~6년 전 이 작품을 처음으로 연주할 기회가

있었다. 작품 전에 받아본 공연용 악보에는 음악감독인 지휘자가 생각하는 드라마적인 요소들과 원하는 연출방식, 그리고 작품을 해석하는 데 도움을 받은 많은 자료들의 간략한 메모가 적혀 있었



▲ 그림3

다. 거기서 나는 판 데어 린덴(Huub van der Linden)이 쓴 대본가 베네딕토 팜필리에 관한 글을 알게 되었고, 그 안에서 그가 교회의 성인들을 극으로 표현해 내는 교의적 방식을 읽게 되었던 것이다. 비록 전승으로 인해 오해된 인물의 해석으로 탄생된 작품이지만, 이 오라토리오가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를 모델로 했다는 것은 가톨릭 신자인 나로 하여금 작품의 인물을 더욱 가깝게 느껴지게 했다. 고음악 거장인 지휘자 르네 야콥스의 제안이었던 이러한 인물 해석방식과 그 당시 그녀를 그린 그림들을 비유로 들며 대본에 나타난 거울 등 소품들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은 음악작품을 향한 흥미로운 접근법이었기에 내가 맡은 역할 아름다움에 남다른 애착이 생기기도 했다. 나는 계속해서 '마리아 막달레나의 회심'을 주제로 한 다른 많은 회화작품들을 찾아보았다. 다른 공연 차 로마에 갔을 때, 팜필리 저택 갤러리를 방문해 드 라 투르가 영향을 지대하게 받았다는 카라바조의 <회심의 막달레나>도 보았다.

어떤 그림인지 알고 가긴 했지만, 실제로 찾았을 때는 적잖은 실망을 해야 했다. 그 저택 갤러리에는 막달레나의 회심이라는 같은 주제의 다른 작가의 작품들도 몇몇 있었는데, 주인공들의 표정은 침통했지만 모두 아름다운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중 가장 유명하다는 카라바조의 마리아 막달레나는 누가 봐도 어여쁜 주인공

이 아니었다. 늘 이런저런 논란에 휩싸이던 카라바조가 완성한 최초의 종교작품이라는 이 그림은 당시에 비난과 찬양이 교차했다고 한다. 특히 마리아 막달레나를 그리던 전통적 관습들과 너무 차이가 나서 모두에게 쇼크를 주었다. 전에도 고급 매춘부 몇몇을 모델로 삼아 스캔들의 주인공이 되었던 그가 막달레나의 모델로 택한 여인 역시 그들 중 하나였던 ‘안나 비안키니’다. (카라바조는 이 모델로 성모 마리아를 그리기도 하였다.) 이는 곧 ‘옆집 여자처럼 평범한 여인네 하나가 밤중에 혼자 머리 마르길 기다리는 것 같다.’ ‘오일병이나 끊어진 장신구들같이 다른 종류의 그림에나 쓰이는 소재들을 사용함으로써 너무 꾸며댄 듯한 종교작을 만들었다.’ 등의 혹평을 받았다. 또 어떤 이는 ‘이 그림은 애수를 자아내는 어떤 것과 노곤한 감수성을 일절 배제한 것’이라고 사실주의적 평가를 했다. 오히려 한 성직자는 ‘가슴 깊은 곳의 양심의 가책과 그 뒤에 비밀스럽게 타오르는 불빛을 보이게 하는 카라바조는 그만의 특유한 색깔로 가장 내적인 감각들을 표현해 냈다. 과연 카라바조는 눈먼 양심의 어두움 속에(in the blind darkness of conscience) 숨은 호수의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작가다’라고까지 극찬했다고 전해진다. 한편 한 전기 작가는 비안키니의 기록을 인용해 ‘이 그림은 당시의 매춘부들이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를 표현하고 있다. 부은 눈과 손등, 연고가 담긴 병은 그들이 당시 경찰과 시민들에게서 받은 치욕을 보여주며 그 상처들은 카라바조에게 영감을 주었다.’고도 남겼다.

사실 내가 실제로 가서 보며 꼭 보고 싶었던 것은 오른쪽 눈에서 떨어지는 ‘눈물 한 방울’이었다. 미리 읽고 간 도움 글들에 강조된 그 한 방울의 눈물은 사진에서는 잘 보이지 않았기에 그 궁금증은 더했다. 이 갤러리에서도 그 그림이 꽤 높이 걸려있는 데다 조명들에 반사되어 어렵게 몸을 이리저리 구부리고 목을 빼고서야 그 한 방울

의 눈물을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그때의 기쁨과 환희, 그리고 동시에 마음을 동요했던 슬픔. 그 눈물은 대본에서 말하던, 하늘에 올라가면 진주가 된다는 옴은 이들의 보잘것없는 눈물, 그리고 주인공 아름다움이 조용히 하늘의 천사들에게 부르는 마지막 아리아와 꼭 닮아 있었다. 한 여인네의 한없이 쪼그라든 절망 속에서 그 한 방울 눈물로 인해 작게 피어나 빛나고 있는 참된 기쁨. 그것이 팜필리 추기경이 말하고 싶었고, 드 라 투르나 카라바조가 그리고 싶었고, 헨델이 올려내고 싶은 음악이 아니었을까를 상상하며 준비하는 공연은 남달리 소중했다. 어떤 예술분야든 명작들은 시대를 초월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기에 대본은 읽으면 읽을수록 현세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담고 있었으며, 그림들 역시 수백 년 후의 현대인들도 빠져들 만큼 신비로웠다. 처음 썼던 오라토리오의 대본을 수정하여 생애 마지막 오라토리오 <시간과 진실의 승리>를 완성한 헨델 역시 화려한 오페라로 명성을 얻는 동안에도 평생 이 주제를 소중히 마음에 담고 있었을지 모르겠다.

우리의 이 작품 첫 공연은 12월 31일, 한 해 마지막 날 저녁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신나게 들리고 화려한 음악이 아닌 이렇게 회개를 주제로 하는 (물론 극적인 요소로 음악적으로는 생동감이 넘치지만) 오라토리오를 한 해를 마무리하도록 한 용기와 의도에 박수를 보냈다. 한껏 꾸미고 나왔던 아름다움이 시간과 깨달음의 도움으로 마음을 돌리고 마침내 그 마음을 오롯이 하늘로 향해 울조리는 기도의 노래로 공연이 끝나는 한 해의 엔딩. 내가 그즈음 잠을 잘 못 잔다는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는지 지휘자 르네 야콥스가 마지막 리허설이 끝난 후 내게 조용히 다가와 물었다. “너도 이런 벅찬 작품을 준비할 때면 잠이 들기가 어렵느냐?”고. 안 피곤해서가 아니라 이게 너무 아름다워서... 

배움

희년이란

그림 : 송석철 임마누엘



‘주님의 은총의 해’로서,
용서와 화해-참회를 통해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는 해이며,
그리스도와 만나는 해입니다.

감사와 기쁨과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해!

영적 투쟁을 통해
거룩하지 못함을
회개하고



원수진 이를 용서하며, 화해하고 관계회복하여



앞으로가 중요해
잘못 했습니다.



본래의 자리에서
은총으로
자유와 기쁨을 얻는 것

모두의 행복한 세상을 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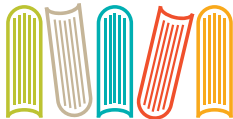
그리스도인 **다** 함께 살겠습니다
자기 컸은 자기가! 험담보다 칭찬을!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인협의회

평신도 양서

정리
김선동 편집위원



부르심받은 이들의 부르짖음

정태한 지음 / 가톨릭출판사 / 148x210 / 344쪽 / 1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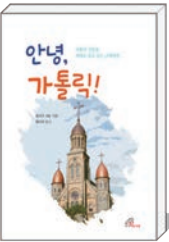
그리스도인은 현세에서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라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하기에 그리스도인이려면 누구나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한다. 신앙생활을 해 오면서 얼마나 하느님을 절실히 찾고 기도를 했는지, 작은 희생과 봉사를 얼마나 실천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하느님의 부르심에 어떤 식으로 응답해야 할지 모른다면, 성경 속 인물들에게서 그 모범을 찾아보면 어떨까? 이 책은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경 속 인물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그들의 기도를 통해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를 알려 준다.



피정하고 싶다

안셀름 그윈 지음 / 김선태 옮김 / 생활성서사 / 140x200 / 192쪽 / 13,000원

그리스도인은 메말라가는 심신에 생기를 주고 싶을 때, 무의미해 보이는 일상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고 싶을 때, 피정을 동경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그저 동경으로 그치고 만다. 동경만으로 그치는 가장 큰 이유는, 단체적으로 하는 교육이거나 일상생활 또는 집을 떠나야만 할 수 있다는 피정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저명한 영성가이자 밀리언셀러 작가인 안셀름 그윈 신부는 이 책을 통해 피정이 무엇인지 잘 모르거나 단체로 하는 피정으로 인해 피정의 참의미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오직 자신만을 위한 '개인 피정'을 안내하고 지도함으로써 '품격 있는 피정'을 하게 해 준다.



안녕, 가톨릭!

올리아 크눔 지음 / 황미하 옮김 / 바오로딸 / 153x200 / 300쪽 / 14,000원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교회 상식이나 교리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신자들이 주변에 많다. 유아세례를 받았거나 군대에서 세례를 받은 신자들은 더더욱 그렇다. 스스로를 '무늬만 신자', '날라리 신자'라고 말하는 이들도 자주 본다. 신자 재교육이 왜 중요하고 또 꾸준히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다. 이 책은 가톨릭을 제대로 알려주는, 가톨릭 신앙과 영성에 관한 안내서다. 특정한 표지와 상징, 주요 기도들과 신앙고백, 미사를 포함한 전례와 성전, 고유한 자세와 삶의 방식을 중심으로 가톨릭 신앙의 49가지 주제를 다루었다.



예비신자 교리서 사랑의 공동체

노틀담수녀회 교리교재연구소 지음 / 성바오로 / 187x260 / 136쪽 / 13,000원

기존 예비신자를 위한 교리서들은 가톨릭 신앙에 대해 모든 것이 생소한 예비신자들에게 낯설고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래서 교육 수녀회인 노틀담 수녀회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교리의 핵심을 담고 있으며, 배운 교리를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교리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다. 고심 끝에 노틀담 수녀회는 자신들이 만들어 큰 호응을 받고 있는 노틀담 첫영성체 교리서를 기본으로 하여 좀 더 쉽고 감성적 접근이 가능한 성인용 예비신자 교리서를 만든 것이 이 책이다.



상처 입은 신앙

토마시 할리크 지음 / 오민환 옮김 / 분도출판사 / 150x215 / 232쪽 / 16,000원

이 책은 『하느님을 기다리는 시간』에서 신앙과 불신앙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토마시 할리크의 또 다른 작품이다. 『상처 입은 신앙』은 부활한 예수에게 꿰뚫린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 달라고 하는 토마스 사도의 의심을 모티브로 삼아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과 그로 인한 신앙의 상처에 대해 논한다. 예수에게 상처를 보여 달라고 말할 용기, 예수의 십자가 고통과 죽음, 그 어두운 밤을 지난 부활이 우리의 신앙 여정에 주는 의미에 대해 말한다.



하루를 영원처럼

양재오 지음 / 으뜸사랑 / 148x210 / 224쪽 / 12,000원

한국외방선교회 양재오 신부의 신앙 수상집. 우리는 '더 나은 곳'을 갈망하는 이 세상의 나그네[過客]요, '하늘 본향'을 찾아 나선 순례자다. 삶이 다하는 그날 이 세상에서 순례의 여정이 다하는 그때까지 우리는 그것들과 더불어 살아가며, 그것들과 함께 내 삶의 모자이크를 만들어 가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여기서 관건이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눈길[視線]로 그것들을 바라보고, 어떠한 자세로 그것들을 대면하고 받아들이며, 어떻게 그것들을 다독거리고 다스리며 사는가?'이다.



『레 미제라블』

빅토르 위고 지음 / 최은주 옮김 / 서교출판사 / 125x195 / 456쪽 / 12,500원

한 가톨릭 성직자의 지고한 사랑이 한 죄수의 일생을 완전히 바꿔 놓는다는 불후의 명작이다. 훔친 빵 한 조각 때문에 무려 19년을 감옥에서 살아야 했던 주인공의 파란만장한 삶을 통하여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한 인간이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브앵브뤼 주교의 끝없는 사랑에 힘입어 새사람으로 변모함을 그린다. 프랑스 저명 소설가 앙드레 지드는 이 작품을 두고 "인간의 영혼을 울리는 위대한 소설"이라고 평했다.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한국평협 2018년 전반기 연수회 개최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회장 손병선, 담당사제 조성풍, 이하 한국평협)는 지난 7월 6~7일, 원주교구 배론성지에서 각 교구평협 회장단과 전국 사도직 단체장 65명이 모인 가운데 2018년 전반기 연수회를 가졌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한국 평신도 회년’을 살고 있는 우리가 평신도 사도직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개막미사에서 조규만 주교(원주교구장)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고, 하나님이 소외된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런 세상에서 질서를 다시 세우는 일은 평신도가 나서야 한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어 다른 이보다 좀 더 노력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니, 남을 부러워하지 말고 자신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돌아보자.”고 당부했다.

나현식 형제(전 광주평협 회장)는 주제발표에서 ‘교회 안에서 평신도 사도직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한국평협 50년 역사와 교회에서 말하는 평신도 사도직에 대한 정의, 교회 환경의 변화를 폭넓게 다루며, 한국평협 조직의 정체성에 대한 검토와 분석, 바람직한 활동 방향을 제안했다. 주제 발표 후에는 6개 조로 나누어 3가지 주제를 가지고 열띤 토의를 했다.

둘째 날 열린 임시총회에서는 평신도사도직연구소장을 승인하고 가톨릭 대상의 운영 규정과 심사 규정을 합쳐 ‘가톨릭 대상 운영 규정’으로 개정했다.

신임 이창훈 평신도사도직연구소장은 소감에서 “부족한 저를 소장으로 승인해주셔서 감사드린다. 평신도 사도직 활성화를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고 소감을 밝히며, 후반기 연수회에서 평신도사도직연구소의 방향성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후반기 연수회는 9월 14~15일, 의정부교구 민족화해센터에서 개최한다.

● 한국평협 창립 50주년 감사미사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는 지난 7월 21일, 각 교구 회장단, 전국 사도직 단체장, 대전교구 신자 등 700여 명이 모여 한국평협 창립 50주년 기념행사와 감사미사를 가졌다.



한국평협 창립총회를 개최했던 역사적 장소인 대전교구 대흥동성당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모범적인 삶을 살다간 김익진 선생의 생애를 다룬 연극 ‘빛으로 나아가다’ 공연을 시작으로 한국평협 최홍준 고문의 특별강연(주제: 평신도 활동의 연원과 방향성), 기념식과 감사미사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 함께한 신임 교황대사 알프레드 수에레브 대주교는 축하인사에서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이 평신도들에게 당부한 메시지를 다시 상기시키며, “여러분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 사회에 증언할 때, 성령께서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신다.”고 말했다. 이어 “사도직의 혼이라 할 수 있는 성체성사를 통해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사랑이 전해지고 자라나 사도직에 대한 영감과 힘을 얻으시길 바란다.”고 말하며, 평신도들에게 프란치스코 교황의 강복을 전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한국평협 손병선 회장은 개회사에서 “끊임없는 기도로 영혼의 샤워를 자주 하고, 식어가는 복음화의 빛을 새롭게 밝히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평협 공동체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도록 우리 모두 힘차게 정진해 나가자”고 말했다.

주교회의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 위원장 손희승 주교는 기념식에서 대전교구와 대흥동성당 신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평신도로서 우리가 받은 사명을 새기고 각자의 위치에서 답게 살면서 서로 힘을 합쳐 주님의 포도밭을 성실하게 일구어 나가기를 바란다. 오늘 이 자리가 한국 교회의 평신도들이 각자의 본분에 충실하며 초기 한국 교회 신자들처럼 자신의 목숨 내놓는 아름다운 모습을 이어가는 계기가 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백성으로 불림 받았음을 기억하고 각자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평신도들의 활동을 격려했다.

기념식 말미에는 참석한 모든 신자가 ‘한국평협 창립 50주년 평신도 선언문’을 함께 외치며 봉헌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감사미사를 주례한 유흥식 주교는 “오늘날처럼 전문화된 세계에서 평신도의 적극적인 참여 없는 선교와 복음화는 불가능하다. 평신도는 각종 사회문제를 겪고 있는 이 세계에서 시대의 징표를 읽고 교회 공동체가 복음을 오늘의 언어와 감성에 공명하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데 적극 참여해야 한다. 교회는 이러한 평신도의 역할을 인정하고, 평신도가 교회 사목의 공동 주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주어야 한다.”며 평신도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한국평협 창립 50주년 평신도 선언문’ - 세상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 평신도

지금 평신도 회년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평신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과 우리 교회의 현재이자 미래인 젊은이들과 함께 협력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제자리를 찾아가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 이름이 거룩하게 빛나도록 힘쓰고자 합니다. 또한 신앙 선조들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목소리와 성령의 인도에 기꺼이 응답하여 하나님 구원사업에 자발적이고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협력자로서 동참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면서 교회의 주체로서 하나님과 교회에 봉사하고, 사회인으로서 참 신앙인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냄으로써 복음화의 길에 앞장설 것을 선언합니다.

- 그리스도교 생활 전체의 원천이며 정점인 미사와 성사에 자주 참여하여 영적 힘을 얻고, 이를 우리 사도직 활동의 양식으로 삼겠습니다.
- 성령의 감도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자주 읽고 묵상하여 우리 삶의 나침반으로 삼고 말씀을 실천하도록 힘쓰겠습니다.

- 소외된 이웃과 청년들과 연대하여 사회 정의와 공동선을 추구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에 충실함으로써 하느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하느님의 작품인 인간과 자연의 생명을 존중하고 생태계 보존에 앞장서 하느님의 손길과 숨결을 느끼며 이어가겠습니다.
- 분단과 분열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하여 용서와 화해와 협력에 힘써 하느님의 자비와 평화가 이 땅에 머물도록 기도하겠습니다.

● 듀오 메타노이아, 한국평협 홍보대사로 활동

듀오 메타노이아(김정식 로제, 송봉섭 요한)가 한국평협 홍보대사로 활동한다. 올해 초 생활성이 가수 김정식과 테너 송봉섭은 '메타노이아'라는 이름의 듀오를 결성했다.

메타노이아는 희랍어로 '돌아섬', '회개'를 뜻한다. 직역하면 '돌아감', '다시 생각하다'라는 의미를 떠올릴 수 있다. 메타노이아는 모든 사람이 언제라도 돌아가 설 수 있는 영원한 마음의 고향이자 치유다. 듀오 메타노이아는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가 회복과 치유의 노래를 부름으로써 위로와 쉼, 그리고 평안을 주고자 한다. 생활성과 성악이라는 장르를 넘어 노래를 통해 신앙과 삶의 영성 나누고자 하는 두 한국평협 홍보대사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한다.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서울평협 임원 · 회원단체장 1박 2일 합동 워크숍 진행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회장 손병선, 담당사제 조성풍, 이하 서울평협)는 지난 6월 9~10일 영등포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40여 명의 평협 임원, 회원단체장이 모여 워크숍을 가졌다.



워크숍 첫째 날 이창훈 평신도사도직연구소장이 '평신도 회년과 평신도 사도직'을 주제로 강의했다. 이 소장은 "회년을 지내고 있는 우리는 일그러지고 잘못된 것들이 제자리를 찾고, 원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 사명 수행을 위해 각자의 역량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고유한 사도직을 수행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

이후 프로그램에서 참가자들은 한국 평신도 회년을 보내며, 평신도들의 다짐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점검했고, 앞으로 남은 회년 기간을 어떤 정신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논의했다. 특히 그룹 토의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된 것은 '회원단체와 평협의 연대 및 협력'에 대한 내용이다. 참가자들은 평협을 중심으로 단

체 간 정보를 공유하고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며, 단체협의회인 평협이 단체들이 직면하는 여러 문제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단체와 평협의 연대 일환으로 내년 김수환 추기경 선종 10주기를 맞아 힘을 모아 뜻있는 추모 행사를 마련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둘째 날은 서울평협 김효철 교육위원장이 '세상과 교회를 바라보는 평신도의 눈'을 주제로 강의하였고, 이후 파견미사를 봉헌하며 워크숍 일정을 마무리했다. 미사 강론에서 조성풍 신부는 "하느님은 세상 어둠과 난관을 막아주는 요새이시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자리하면 어떠한 어려움도 두려움 없이 극복할 수 있다. 우리의 내적 마음을 나날이 새롭게 하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걸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춘천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제10회 38선 티모테오 길 도보순례' 협의회 개최



춘천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이하 춘천평협)는 지난 7월 27일 양양성당에서 교구 사목국장 신부, 양양성당 주임신부, 춘천평협 임원 및 양양성당 사목위원 20여 명이 함께 모인 가운데 '제10회 38선 티모테오 길 도보순례(2018. 10. 9.)'를 위한 협의회를 진행했다.

티모테오 순례 길은 38선이 그어질 당시 이북에 위치해있던 양양성당의 이광재 티모테오 신부가 신앙과 자유를 찾아 38선을 넘어 남하하는 동포들을 도와 주기 위해 인민군을 피해 목숨 걸고 넘어 다녔던 길로 18km 거리의 피난길이다. 춘천평협에서는 이광재 티

모테오 신부의 순교의 삶을 묵상하며 2009년부터 매년 이광재 신부의 순교일인 10월 9일, 38선 티모테오 도보순례를 실시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티모테오 도보순례 10주년을 맞아 순례의 여정을 새롭게 조명하고 순례의 의미를 되새겨 티모테오 길이 춘천교구의 특색 있는 순교도보성지로 자리매김하여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 수 있게 하기 위한 기도의 순례 길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도보순례 10회를 맞아 순례 방식을 6. 25 이전 남하 당시의 복장과 먹거리를 재현하여 위험 속 신앙과 자유를 찾아 남쪽으로 향하는 그 당시 심정을 체험해보고 남하 후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신앙을 찾아 넘나든 38선을 따라 순례하면서 자신의 신앙적 삶을 되돌아보고 내적 쇄신을 이루는 성화의 자리가 되는 기회를 만들어 보고자 한다. 또한 교구 차원을 넘어 많은 이들을 아우르는 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기획하여 명품 순례 길을 조성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 '평신도 회년 지구별 특강' 영북지구에서 성황리에 성료



춘천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이하 춘천평협)는 평신도 회년을 맞이하여 평신도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제공하고자 지구별로 찾아가는 평신도 회년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6월 15일에는 네 번째로 영북지구 교동성당에서 이상덕(이사악) 평신도 선교사가 '선교하는 평신도'를 주제로 특강을 실시하였다. 영북지구는 9개 본당으로 이루어져 있고 소규모 성당이 많은데도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200여 명의 신자들이

참석하여 선교의 중요성을 다짐하는 시간을 보냈다.

이상덕 선교사는 ‘어떻게! 복음 선교를 해야 할까?’라는 내용으로 평신도들이 삶 안에서 신앙을 증거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명강의를 하였다. “평신도 회원 지구별 특강”은 앞으로 9월 7일 금요일 강릉 솔을 성당에서 ‘기도하는 평신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권길중 전 한국평협 회장의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중명 춘천평협 회장은 “평신도 회원을 맞아 기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평신도 회원 지구별 특강’이 사제들의 협조와 신자들의 많은 참여로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어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예정되어있는 특강도 좋은 결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제4차 생명연수



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김광현, 지도 김민희 신부, 생명담당 박지순 신부)는 6월 16일 세종시 전의면 정하상교육회관에서 제4차 ‘생명연수’를 개최하였다.

‘미혼모’를 주제로 열린 이날 연수에서는 최근 낙태죄 폐지와 낙태 합법화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흐름에서 미혼모 문제를 교회적 시각과 구체적인 사례로 살피며 생명 수호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 연수를 계기로 평신도들이 일상과 삶 안에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 뜻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 논산대건고 생명캠페인



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김광현, 지도 김민희 신부, 생명담당 박지순 신부)는 7월 18일 충남 논산 대건고등학교 대건관에서 생명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대전평협과 대전자모원(미혼모시설),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호스피스팀, 논산시 보건소 정신건강팀이 참여하였다.

2008년부터 ‘한생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대전평협은 학교·본당 등 생명 운동이 필요한 곳을 찾아 캠페인과 교육을 벌이고 있다.

인천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故 최기산 주교 2주기 추모미사



5월 30일 인천교구의 제2대 교구장 故 최기산 보니파시오 주교 선종 2주년 기념 미사가 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담당사제 이용권, 회장 김동빈)주관으로 백석성직자요원에서 봉헌됐다. 400여 명의 신자들과 함께한 이날 미사에서는 연령회연합회 연도단의 연도가 있었고, 교구장 정신철 주교 집전으로 교구 사제단이

함께 하는 미사를 봉헌했다.

강론에서 정신철 주교는 “하느님 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최기산 주교님께서 언제나 우리 모두를 위한 전구의 기도를 드리고 계실 것이다. 이 자리가 주교님께서 남겨주신 신앙 속 참된 행복과 사랑을 되새겨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미사에는 한일 천주교 교구 활동을 통해 인연을 맺은 가고시마 교구의 고리야마 겐지로 주교가 참석하여 추모의미를 더했다.

● 제3회 인천교구 성체현양대회



6월 6일 인천교구 제3회 성체현양대회 및 성체거동이 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담당사제 이용권, 회장 김동빈) 주관으로 부천 2지구와 시흥·안산 지구 교구민 1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포성체성지에서 거행되었다. 김포성당에서 성체조배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교구장 정신철 주교 주례, 지구 신부들의 경축미사 집전에 이어 성체거동 및 성체강복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정 주교는 강론에서 성체성사가 하느님께서 모두에게 전하는 무한한 사랑의 증거임을 설명하면서 “외아들인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기꺼이 내

어주는 희생을 하셨으므로 우리도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실천과 보답을 해야 한다.”고 말하며 성체조배를 권고했다. 미사 후 성체성지를 향해 성체거동 행렬을 시작하여 성지에서 성체강복을 한 후 밤늦게까지 성체현시조배를 진행했다.

● 교구장 정신철 주교 은경축 및 축일 축하 미사



6월 22일 교구장 정신철 주교 사제서품 25주년 및 영명축일 축하미사를 사제, 수도자, 신학생, 신자 등 총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구청 보니파시오 대강당에서 봉헌했다. 강론에서 정신철 주교는 사목표어 요한1서 4장 16절을 언급하며 사랑과 겸손을 통해서 사제직에 충실할 수 있도록 힘쓰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부 축하행사에서는 축하 영상을 시작으로 교구민의 기도를 담은 영적예물 봉헌 및 기념영대 증정, 케익 커팅, 교구 신학생들의 축하에 이어서 평신도사도직협의회 김동빈 회장의 축사, 정 주교의 감사 인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축사에서 김 회장은 “정신철 주교님의 은경축을 인천교구 신자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주교님께서 교구 공동체의 결속과 교회 내부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 고심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고 말하며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의정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한국 천주교 ‘평신도 회원’ 기념 학술심포지엄

천주교 의정부교구 사목회장협의회, 의정부교구 평



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가 주최하고 의정부교구 사목연구소가 주관하는 한국 천주교 '평신도 회년' 기념 학술심포지엄이 지난 6월 23일 의정부교구 신앙교육원에서 개최됐다. 한효수 회장 환영인사와 교구장 이기헌 주교의 축사로 시작된 학술심포지엄은 '변화의 시대, 다시 깨어나는 평신도'를 주제로 열렸다.

'변화의 시대, 다시 깨어나는 평신도'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심포지엄에서는 마재성지 최민호 신부가 '한국 천주교 평신도의 영성(자발성, 성모성심, 순교신심)'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최 신부는 발표에서 "하느님 섭리의 손길을 가장 먼저 느낀 신앙의 선조들이 살았던 곳, 한국 천주교회의 신앙의 싹을 가장 먼저 틔웠던 곳, 모진 박해 속에서도 신앙의 꽃을 피웠던 곳, 이곳에서 나자렛의 예수 마리아 요셉을 닮은 마재 성가정이 탄생하였다. 이것이 한국 평신도 영성의 뿌리를 마재 성가정의 삶 안에서 찾아보려는 이유이다. 이 영성을 본받으며 한국천주교회의 축복을 보존하여 다시 첫 마음으로 쇄신한다면,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성가정을 이루며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성의 뿌리를 정약종 일가의 삶에서 들여다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박문수 박사가 '복음의 기쁨으로 사는 평신

도'라는 주제로 발표한 후 설문조사 결과 발표자로 나섰다. '다시 깨어나는 평신도, 새롭게 시작하는 평신도 사도직' 라운드 테이블(Round Table)에서는 이재화(선교사목국장) 신부, 김옥현(사목협의회) 회장, 한효수(평단협) 회장, 송정미(여성총구역) 대표, 성경화(신학자) 선생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한효수 교구 평단협 회장은 패널 토의에서 본당 신부들의 개인 성향에 따라 본당 단체들의 활동을 중지시키거나 폐지하는 경우가 있고, 단체 지도(담당) 신부들이 해당 단체 활동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단체들이 교구의 사목 방침이나 단체 특성에 맞게 활동하도록 지도하는 일 외에 나머지는 단체들의 자율에 맡기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이기헌 교구장 총평 후 김옥현 회장의 감사 인사로 학술심포지엄 일정을 모두 마쳤다.

부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부산평협 평신도 아카데미



부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지도 손삼석 주교, 회장 도용희)는 지난 6월 16일 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에서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마태 20,4)라는 주제

로 평신도 아카데미를 열었다. 450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손삼석 주교의 기조 강연(평신도 사도직의 일반적 이해)을 시작으로 주제 발표(평신도 회년: 정체성 회복을 통한 평신도의 해방을 향하여 - 김종훈 신부), 회년살기 체험담 발표(이호창 다니엘, 망미),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 한국평협 설립 50주년 기념, 평신도 대회

지난 7월 21일 부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주교좌 남천 성당에서 황철수 주교의 주례로 감사미사를 봉헌했다. 손삼석 주교를 비롯한 교구 사제단, 평신도 2,200여 명이 참석하여 한국평협 설립 50주년을 축하하였다. 특별히 이날 미사에 참석한 모든 신자들은 평신도로서의 믿음을 다지는 '평신도 재결의문' 선언식을 진행했다.

황철수 주교는 미사 강론을 통해 "나를 속박하고 억압하는 모든 것에서 해방되어, 참된 기쁨과 자유로움을 누리하고자 하는 것이 회년의 중요한 의미"라고 언급하며 "회년이 지향하는 참된 기쁨과 자유의 삶이 모든 교우들께 주어지기를 기원한다."고 격려했다. 같은 시각, 울산대리구에서도 울산대리구장 권지호 신부의 주례로 신자 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미사가 봉헌됐다.



청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하느님 말씀 축제', 사도들과 함께 떠나는 전교여행



청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길병석, 담당 서철신부)는 6월 2일 청주 장애인스포츠센터에서 '하느님 말씀 축제'를 개최하였다.

'사도들과 함께 떠나는 전교여행'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6월 23일 교구 설정 60주년 감사미사를 앞두고 교구민들이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 기획되었다. 참석한 신자들은 이날 특별히 2018년 '온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교구 공동체의 해'를 지내며 사도행전을 통해 사도들이 어떻게 하느님의 기쁜 소식을 전했는지 말씀 안에서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사도행전 내용을 OX 및 객관식 · 주관식 문제로 풀어보는 '사도들과 함께 떠나는 전교여행' 프로그램과 교구 암송교리 · 암송성경(2017 대림 · 2018 사순 판공 문제지) '골든벨', 사도들의 전교여행을 주제로 한 어린이 사생대회를 주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였다.

축제에서는 성경 및 성경필사본 전시 부스도 마련되었으며 최양업 신부 자료관과 묵주 만들기, 페이스 페인팅 등 다양한 체험 부스도 설치되었다. 붓글씨·캘리그래피 글씨로 '성경 구절 써주기' 행사도 진행하였다. 특히 교구 신자들이 직접 성경을 필사한 다양한 필사본을 전시하여 다양한 신앙체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안동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3차 평협 상임위원회

안동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권혁기, 담당사제 김정현)는 지난 6월 9일 교구청 대회의실에서 제3차 평협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안건은 제27회 교구 친교의 날 결산보고 및 하계연수 준비였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토의를 진행했다.

● 사목임원 단체장 하계연수



안동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권혁기, 담당사제 김정현)는 지난 7월 7~8일 농은 수련원에서 사목임원 제단체장 하계연수를 가졌다. 본당 사목회장단과 교구 제 단체장 등 72명이 참석하였으며, 교구설정 50주년에 대한 주제 강의와 (1) 교구설정 50주년의 의미 (2) 50주년 살아가기 (3) 50주년이 넘겨주는 과제들에 대한 그룹별 나눔이 있었다.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평협 · 여성위원회 임원수련회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신동열, 담당사제 김정용)는 6월 15~16일 완도 원네스리조트로 평협 · 여성위원회 임원과 담당사제, 수녀님, 사목국 직원 등 33명이 임원수련회를 다녀왔다. 올해 새로 구성된 임원들이 전원 참석하여 하반기 사업에 대해 논의를 하고, 친교의 시간을 가져 하나 된 공동체의 힘을 모으는 시간이 되었다.

● 평신도 아카데미 <리더십 과정 제2기> 종강미사



광주평협은 역량 있는 평신도 리더를 양성하는 평신도 아카데미 <리더십 과정 제2기>를 10주 동안 내실 있게 마치고 종강미사를 봉헌하였다. 수강 후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매회 주제와 강사가 좋았으며, 이러한 좋은 교육의 기회를 본당 사목협의회나 제단체는 물론 전 신자들에게 홍보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 순교자현양회 월례미사



광주평협과 순교자현양회(회장 신동열, 담당사제 김정용)는 7월 14일 광주대교구청 경당에서 후원회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원들과 현양회의 발전을 위하여 첫 월례미사를 봉헌하였다.

광주평협은 생명을 바쳐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 순교자들의 삶을 드러내어 널리 알리고 본받기 위하여 2005년 5월 나주초등학교에서 순교자현양대회를 시작으로, 같은 해 9월 25일 순교자현양회를 정식으로 발족하였다. 순교자현양 회원들의 후원과 기도로 그동안 세 차례의 학술회의와 '만 번을 죽어도 하느님을 믿겠습니다.'라는 책자도 발간하였다. 지금은 매년 9월 순교자성월에 '주교님과 함께하는 도보성지순례'를 통해 순교성인들의 삶을 기억하고 오늘을 살아내고자 노력하고 있다. 순교자현양회는 발족에서부터 평협 임원이 겸직하여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더욱 발전된 현양회를 위해 매월 미사를 봉헌하고 있다.

전주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평단협 임원회의

전주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는 6월 15일 교구청 회의실에서 평신도 회원 하반기 사업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요한 15,16)라는 성경 말씀 그대로 새 복음화의 증인이 되겠다는 결의와 함께 사업추진을 통해 기대하는 효과를 점검해보았다.

교구 평신도의 일치와 나눔의 실천, 교구장 주교님의 사목지침 실천과 지역복음화 추진의 일환으로 소외 계층과의 사랑·나눔 운동의 생활화, 평신도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노력의 구체적 실천 방안이 주요 대상이 된 가운데, 평신도 회원 전대사 특은 수혜(受惠), 복음화 대상 시상, 교구 평신도대회, 포켓용 「평신도 회원 실천 기도문」 제작 보급, 작은 사랑의 나눔 공연 등의 사업을 논의하였다.

● 치명자산 성지 '세계평화의 전당', 전주교구 교육문화관 건립 관련 보고 및 설명회



전주교구 본당 사목회장단과 평단협 소속 제단체 회장단 120명이 함께 하는 치명자산 성지 '세계평화의 전당'과 교구 교육문화관 건립에 대한 보고 및 설명회를 7월 14일 평단협 주관으로 교구청에서 개최하였다.

관련 동영상 시청에 이어 2020년 준공을 앞두고 그동안의 과정에 대한 길성환 베드로 신부의 안내 말씀이 있었으며, 교우들을 향한 교구장 주교의 당부 말씀을 경청했다.

이후 참석 회원들의 질의와 교구의 응답시간이 마련되었다. 전주교구의 숙원사업인 평화의 전당, 교육문화관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순조롭게 건립되리라는 바람과 확신 속에서 설명회를 마쳤다.

제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교구 단위 단체장과의 간담회 개최

제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고용삼)에서는 지난 5월 28일, 금년 처음으로 교구청 2층 회의실에서 교구 단위 단체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32개 단위 단체장 중 21개 단체장과 평협 임원들이 함께한 자리에는 교구장 강우일 주교의 격려 말씀과 강복이 있었고, 단체별 활동상황과 향후 사업추진 계획, 애로사항 등 발표가 있었다.

주문 사항으로는 주기적으로 정기 모임을 개최하는 의견과, 단체별 공유가 가능한 단톡방 개설로 상호 소통의 장을 마련해 나가자는 요구 등이 있었는데, 이를 즉각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회의 종료 후에는 만찬을 겸해 진솔한 의견들 공유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상호 간 공감대를 형성하는 유익한 모임의 장이 되었다.

● 태풍 대비 재해 구호 봉사단 연합회 집합교육 실시



태풍의 길목에 위치한 제주에서는 이로 인한 피해가 항상 내재되어 있음에 따라 본당별 재해구호봉사단을 9~11명으로 구성하여 상설 조직 운영하고 있다. 교구 차원에서 본당별 재해봉사단을 통합한 연합회를 평협 회장단이 겸직하여 그 임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으며 본당별 사목회 임원들이 자주 교체되는 점을 고려하여 매년 한 차례 반복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금년에도 7월 15일, 교구청 2층 대회의실에서 외부 강사

를 초빙하여 재해예방교육과 인명구조 관련 심폐소생술 실습 등 교육을 함으로써 재난대비 대응력을 키워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 교구 평협 전 회원 대상 워크숍 실시

제주교구 평협은 평신도 회년을 맞아 평신도 사도직 직분을 원활히 수행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본당 사목회 임원과 교구 내 신심단체장, 그리고 평협 임원들이 함께하는 1박 2일 워크숍을 실시했다.

95명이 참석한 워크숍이 8월 11~12일 성이시돌 피정센터에서 개최되었는데, '새 복음화의 증인-내가 너를 뽑아 세웠다'라는 명제 하에 "한국 평신도 회년 평신도의 소명과 역할"이라는 주제로 문창우 주교의 '제주 역사 속에 평신도 역할'이라는 특강이 있었고, 담당 사제인 황태중 신부 지도하에 '평신도로서의 역할 증대 방안'에 대한 분임토의가 이루어졌다.



마리아사업회(포콜라레운동)

● 2018 마리아폴리, 무더위 속에도 꽃핀 일치의 한 마당 - "함께 마리아의 길을"



올해 마리아폴리는 폭염 속에도 두 곳에서 총 3회에 걸쳐 열려 "성모 마리아의 삶"을 되새기고 이를 생활화하는 장으로 펼쳐졌다.

천안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7월 21~24일(1차), 7월 26~29일(2차) 열린 마리아폴리에는 각각 510여명, 800여 명이 참가했고, 경주 코모도 호텔에서 7월 27~30일 열린 마리아폴리에는 830여 명이 함께했다. 참가자 대부분이 평신도인 3개 마리아폴리 참가자 총 인원 2,140여 명 중에는 주교 4명, 사제 30여 명, 수도자 20여 명도 포함되었다. 일본 가톨릭 신자 7명도 1차 마리아폴리에 참가해 친교와 나눔에 함께했다.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한국이사회

●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한국이사회 워크숍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담당사제 김영환, 회장 이충원)는 지난 7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인천 베네딕도 수도회 은혜의 집에서 교구 이사회장 및 임원 사무장 등 35명이 참석 가운데 하반기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주제는 2019년 빈첸시오회가 나아갈 방향과 그 실천방안으로 '고독사 예방운동'에 관한 열린 토론이 있었다. 이와 함께 각 교구 회장들은 교구의 활동 및 빈첸시오의 나눔과 섬김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이러한 나눔으로 빈첸시오회가 형제애와 연대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하고, 협의회와 협의회 간 자매결연, 교구와 교구 간 긴밀한 협조 등을 결의하였다.

파견미사 강론에서 김영환 신부는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첫 번째 회칙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중 '공동선의 원칙', '보조성의 원칙', '연대'를 강조하였다.

워크숍을 마치며 참석자들은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하였으며, '그래도 그들을 도우십시오. 예수님의 아낌없는 자비처럼!'을 마음에 새기며 일정을 모두 마쳤다.



월드와이드매리지엔카운터한국협의회

● 제2차 팀 양성교육



한국ME는 6월 9~10일 1박 2일 동안 장충동 베네딕도 피정의 집에서 23대 한국ME 대표팀 및 부대표팀 사제(발표 및 미사 집전)와 전국 교구별 양성팀 22쌍의 부부가 참석하여 제2차 팀 양성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서는 사도직 프로그램을 통하여 양성팀 부부의 바람직한 자세, 주말 발표문 유의점 등을 공유하고 양성팀으로서의 영성에 관한 강의 및 그룹토의를 진행하였다.

● 2018 교구대표 간담회



7월 6~7일 전주 천호성지 피정의 집에서 한국ME 대표팀 김홍기 프란치스코, 최계진 마리아 부부, 김웅태 요셉 신부님을 비롯한 전국 15개 교구대표팀 부부 48명 사제 4명 총 52명 참석하여 2018 교구대표 간담회를 가졌다. 행사에서는 한국ME 24대(2019~2021년) 대표팀, 감사팀 소명식별이 있었으며, 15개 교구, 7개

상임위 분과별 2018년 업무 진행사항 보고 및 친교의 시간이 마련됐다.

● 한국ME 가족을 위한 미사

지난 6월 16일, 7월 21일 장충동 베네딕도 피정의 집에서 한국ME 상임위원 및 미사 봉헌 부부들이 한국ME의 발전과 ME가족을 위한 미사로 배우자, 혼인기념일, 가정, 영명축일, 생일, 기일 등의 지향을 받아 미사를 봉헌했다.

한국가톨릭성령쇄신봉사자협의회

● 제1회 가톨릭성령쇄신 창작성가 연수회 개최



한국가톨릭성령쇄신봉사자협의회(회장 윤영수, 대표담당사제 김영철)는 지난 7월 12일부터 13일까지 1박 2일간 수원 아론의 집에서 제1회 가톨릭성령쇄신 창작성가 연수회를 가졌다.

전국 각 교구와 특수공동체(꽃동네, 삼성산, 성심원)의 찬미봉사자와 울동봉사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연수회는 가톨릭신자들이 작사·작곡한 성령기도회를 위한 순수 창작곡 107곡을 선보였다.

지난해 12월 말 '창작복음성가'라는 제목으로 발간된 이 성가집은 5년여의 긴 준비 끝에 세상에 선보여졌다. 이날 행사는 각 교구와 특수공동체 찬미 봉사자들이 먼저 배우고 익혀 성령쇄신봉사회 회원들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한 행사다.

연수회에서는 '창작복음성가'라는 명칭 대신 '가톨릭성령쇄신 창작성가'로 바꾸는 한편 창작성가 연수

회를 매년 열어 이 창작성가를 널리 보급하기로 했다. 그리고 2019년 10월 말부터 창작성가 2집을 위한 '창작성가 경연대회'도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영철 대표담당사제는 파견미사 강론을 통해 "이 창작성가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따랐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이를 끝까지 추진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라며 "앞으로도 2집, 3집 등이 발간되어 새로운 노래를 주님께 계속 불러드릴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한국가톨릭노동장년회전국협의회

● 평신도 사도직 동반자 양성교육 1, 2차 교육

한국가톨릭노동장년회 전국협의회(CWM)에서는 평신도 사도직 동반자 양성 교육을 2018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매월 셋째 주 일요일 총 12회 교육으로 계획하였다. 이번 6월과 7월에 1차, 2차 교육을 노량진에 있는 가톨릭노동장년회(YCW) 본부에서 실시하였다.



1차 교육은 경청과 대화법, 그리스도의 리더십을 주제로 권오광 씨와 김형진 신부가 진행했다. 2차 교육은 복음연구(마태오)를 주제로 정월기 신부가 진행했다. 2시간의 강의와 1시간 30분의 나눔으로 진행되는 이 교육은 가노장(CWM) 조직 내 평신도 사도직 동반자의 부족함을 절실히 느끼며 평신도 스스로가 교육을 통해 풍부한 가노장의 확장과 조직 강화를 위해 마련된 교육으로 진행된다.

한국가톨릭병원협회

● 한국가톨릭병원협회 한일운영위원회 개최

- 한·일 가톨릭 의료기술협력협정 제30차 운영위원회



한·일 가톨릭 의료기술협력협정 제30차 운영위원회가 7월 20일부터 7월 21일까지 1박 2일에 걸쳐 일본 구루메 시의 스이코엔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한국 측에서는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보건사목 담당 유수일 주교와 한국가톨릭병원협회 회장 문정일 교수 외 14명이 참석했으며 일본 측에서는 성마리아병원장 시마 히로지 외 13명이 참석하여 지난 1년간의 교류사업에 관한 보고 및 양 기관의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특히 교류 30주년의 해를 맞은 이번 회의에서는 가톨릭 영성을 기반으로 양 기관이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 한·일 운영위원들이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일본 측에서는 올해 이루어진 의료·개호(한국의 장기요양)보험 수가의 동시 개정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였고 한국 측에서는 가톨릭 국제 술기 트레이닝 센터의 착공과 가톨릭 메디컬 엔젤스 운영안을 공유하였다.

오는 11월에는 한국가톨릭병원·의료협회 세미나를 통해 한·일 가톨릭 의료기술협력협정 30주년을 경축하는 행사를 부산의 노보텔 호텔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가톨릭약사회

● 한국가톨릭약사회 6월 미사 모임



한국가톨릭약사회(회장 이강추)는 지난 6월 25일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성의회관 2층 성당에서 이재열 지도 신부와 함께 가톨릭약사회를 위한 미사와 모임을 가졌다. 이번 모임에는 2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하였다. 6·25 전쟁일을 맞이하여 한반도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미사를 봉헌하였으며, 강론 중에는 ‘용서’에 관한 말씀이 있었다. 미사 후 회원들과 ‘가을 성지순례’에 대해 의논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

● 2018년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 전국 피정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가 주최하고 가톨릭간호사회 부산교구가 주관한 한국가톨릭간호사회 전국 피정이

부산관광공사 아르피나(해운대)에서 6월 23~24일까지 1박 2일 동안 진행되었다. 14개 교구의 가톨릭 간호사 회원 308명이 참석한 이번 피정은 “그분께서 해 주신 일 하나도 잊지 마라.”(시편 103,2)를 주제로 이재석 신부 찬양팀의 축하공연, 손삼석 주교의 특강, 파독 간호사와의 만남, 신부들의 수다 공개방송, 참회의 예절, 파견 미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졌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간호사들은 지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 매 순간에 감사와 찬양을 드렸다. 또한 가족과 동료의 사랑과 격려를 통해 드러나는 하느님의 사랑에서 새로운 힘을 얻는 시간을 보냈다.

한국가톨릭학교장회

● 2018 한국가톨릭학교장회 정기총회 및 연수회 개최

지난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2박 3일 동안 34명의 학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가톨릭학교장회(회장 송동림 신부) 정기총회 및 연수회를 전주 성심여자고등학교에서 개최하였다.

총회에서는 2017년도 결산보고와 활동보고 및 2018년도 예산보고와 활동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또한 현행 학교장회 회칙 수정 및 고문(김영장 신부), 대표담당사제(조영관 신부) 선출이 있었다. 그 외에도 사립학교의 현실, 학교 소속 지역교육청과의 업무 협력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한편 차기 학교장회의는 2019년도에 인천교구 소속 인천대건고등학교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세상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 평신도

- 한국평협 50주년 선언문 -

평신도 회년을 지내고 있는 한국천주교회는 234년 전인 1784년에 평신도들의 손으로 세워졌습니다. 이 땅의 평신도들은 자발적이고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하느님의 자녀이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신앙선조들은 하느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온갖 고난을 겪었으며, 순교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하느님 백성의 사도직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기를 바라는 제2차 바티칸공의회와 교황들은 다양한 문헌과 교리서를 통하여 평신도의 위상과 책무를 교회 안팎에 천명하였습니다. 평신도가 세상 속에서 사제직·예언자직·왕직에 참여하며 복음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은 지난 50년간 나침반과 같은 소임을 해왔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나아갈 50년을 환히 밝히는 등대의 불빛과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영혼보다는 물질, 정신보다는 육체, 영원보다는 찰나 중심의 삶에 경도되어 있습니다. 세속주의와 물질주의가 팽배한 가운데 인간관계의 다양성과 과학기술의 발전 등으로 평신도 사도직의 영역이 더욱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또한 인간의 우월적이고도 자의적인 성향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 인공지능(AI)의 발달과 기술융합의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인간 소외와 일자리 감소, 그리고 누리소통망(SNS)의 확산으로 인한 진리와 진실의 왜곡 및 인간의 존엄성 훼손 등에 직면하고 있어 평신도 사도직의 소임이 더욱 중차대하다는 것을 절감합니다. 아울러 한국천주교회 역시 외적으로 신자수와 본당수의 증가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였지만, 내적으로 미사 및 성사 참여율이 급격히 저하되고 미지근한 신자가 급증하는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지금 평신도 회년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평신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과 우리 교회의 현재이자 미래인 젊은이들과 함께 협력하고, 모든 것이 하느님의 뜻대로 제자리를 찾아가도록 기도하며, 하느님을 찬미하고 그 이름이 거룩하게 빛나도록 힘쓰고자 합니다. 또한 신앙선조들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목소리와 성령의 인도에 가까이 응답하여 하느님 구원사업에 자발적이고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협력자로서 동참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면서 교회의 주체로서 하느님과 교회에 봉사하고, 사회인으로서 참 신앙인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냄으로써 복음화의 길에 앞장설 것을 선언합니다.

1 그리스도교 생활 전체의 원천이며 정점인 미사와 성사에 자주 참여하여 영적 힘을 얻고, 이를 우리 사도직 활동의 양식으로 삼겠습니다.

‘사도직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나라를 온 세상으로 넓히고, 모든 사람을 구원에 참여시키며, 그들을 통하여 온 세상이 실제로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활동이

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와 긴밀하게 일치하는 이러한 삶은 모든 신자에게 공통된 영적인 도움으로 특히 거룩한 전례의 능동적인 참여에서 그 힘을 얻는다. 사도직의 생명인 사랑은 성사 특히 성체성사로 전달되고 자라난다.’(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교령 〈사도직 활동〉)

2 성령의 감도로 기록된 하느님의 말씀인 성경을 자주 읽고 묵상하여 우리 삶의 나침반으로 삼고 말씀을 실천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성경을 자주 읽음으로써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지고한 가치’(필리 3,8)를 얻도록 강력하고 각별하게 권고한다. 성경을 모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다. 성경을 읽을 때에는 하느님과 인간의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기도가 따라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하느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하느님 말씀을 읽을 때에는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기 때문이다.’(〈계시현장〉)

3 소외된 이웃과 청년들과 연대하여 사회 정의와 공동선을 추구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에 충실함으로써 하느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는 우리를 위한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그러나 이 우리라는 말은 또한 그분을 모든 사람의 아버지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결핍을 느끼고 고통을 겪는 사람들과 이루는 연대에서, 그들 모두를 위하여 아버지께 기도드리는 것이다. ...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와 마찬가지로 평신도들은 세례와 견진을 통하여 바로 주님께 사도직에 임명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개인적으로나 단체적으로 하느님의 구원 소식을 사람들과 온 세상에 알리고 받아들이게 하는 일을 수행할 의무와 권리를 가지고 있다.’(〈가톨릭교회교리서〉)

4 하느님의 작품인 인간과 자연의 생명을 존중하고 생태계 보존에 앞장서 하느님의 손길과 숨결을 느끼며 이어가겠습니다.

‘영성은 인간의 몸이나 자연, 또는 세상 현실에서 분리되지 않고, 오히려 그 안에서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과 일치를 이루며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생태계의 위기는 우리의 깊은 내적 회개를 요청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생태적 회개입니다. 이는 예수님과과의 만남의 결실이 그들을 둘러싼 세상과의 관계에서 온전히 드러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프란치스코 교황의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 서한〉)

5 분단과 분열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하여 용서와 화해와 협력에 힘써 하느님의 자비와 평화가 이 땅에 머물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루카 4,18-19)

Editor's Let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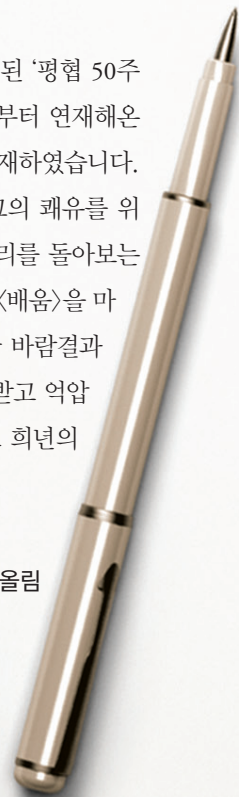
‘주여, 때가 왔습니다. 지난여름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릴케의 시 <가을날>이 떠오르는 날입니다. 기상관측 이래 가장 뜨거운 날이 이어지던 여름이었습니다. 그러나 끝없이 이어질 것만 같던 폭염도 계절의 순환 앞에서는 그 기세가 꺾이고 말았습니다. 어느새 결실의 계절입니다. 무더위, 열대야, 대프리카, 서프리카, 가뭄, 거북등과 같은 단어들이 대변하던 고통스럽고 힘든 현실로부터 해방된 겁니다. 대자연의 신비를 통하여 하느님의 섭리를 새삼 깨닫습니다.

우리는 지금 평신도 회년을 지내고 있습니다. 회년(禧年)은 일곱 번의 안식년을 지낸 뒤에 맞는 거룩한 해이자 해방을 선포하는 해입니다.(레위 25,8-22) 그야말로 복되고 경사스러운 해인 것입니다. 고되고 혹독한 시간을 지낸 후에 맞이하는 달콤한 휴식 시간인 셈입니다. 마치 이글거리던 태양의 열기에서 벗어나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낭랑한 풀벌레소리를 듣는 기분과 흡사할 겁니다. 우리를 억누르고 있던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는 느낌 말입니다.

이번 호에는 우선 지난 7월 21일 대전교구 대흥동 주교좌 본당에서 거행된 ‘평협 50주년 기념식’에 대한 소감문 두 편을 특집으로 실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봄 호부터 연재해온 한국평협 설립 50주년 맞이 특집 ‘한국. 평신도. 열두 마당’ 마지막 회를 게재하였습니다. 모진 병마와 싸우면서 글을 완성한 서상덕 편집위원의 노고에 감사하며, 그의 쾌유를 위한 기도를 청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신앙 선조들의 삶을 통하여 오늘의 우리를 돌아보는 <나눔>, 오늘날 평신도의 복음적 삶을 다각도로 조망한 <만남> · <이야기> · <배움>을 마련하였습니다. 모쪼록 이 글들이 독자 여러분의 가슴속에 가을날의 청량한 바람결과 맑고 푸른 하늘빛으로 다가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곁에서 고통받고 억압받는 이들과 함께 해방의 기쁨을 누리는 단초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평신도 회년의 끝자락에 서서 복되고 경사스러운 나날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편집장 김문태 힐라리오 올림



교구평협, 회원단체 소속

『평신도』 명예기자를 모집합니다.



한국평협에서는 계간 『평신도』와 함께할 명예기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각 교구평협과 회원단체별로 한 명의 명예기자를 선정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명예기자는 앞으로 『평신도』에 관련된 각 교구와 단체의 소식과 사진자료 등을 정리해서

한국평협 사무국 ☎ 02)777-2013, FAX 778-7427, 전자우편 clak0723@naver.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명예기자는 아름다운 자원봉사활동입니다.

명예기자 명단(2018년 9월 현재)

소속	이름	세례명	이메일 주소
서울평협	염지유	로사	clas@clas.or.kr
대전평협	윤정분	아네스	tjclass@hanmail.net
인천평협	안영근	안토니오	kgph@caincheon.or.kr
수원평협	서덕희	미카엘라	pyonghyop@casuwon.or.kr
원주평협	백정현	임마누엘	obdo@obdo.co.kr
의정부평단협	최태용	레오	choy1902@hanmail.net
부산평협	전영주	바오로	libys@hanmail.net
청주평협	이상철	방지거	howareyoulee@naver.com
마산평협	최명숙	안젤라	clacms@hanmail.net
안동평협	신춘덕	로사	s9581@hanmail.net
광주평협	정춘자	로사	jlosa1208@hanmail.net
전주평단협	유광용	대건 안드레아	teleto60@naver.com
제주평협	강수미	도미니카	enjoy7508@hanmail.net
꾸르실료한국협의회	황웅진	헨리코	hwjin70@naver.com
마리아사업회(포콜라레운동)	최석균	마태오	maongchoi@hanmail.net
성빈첸시오아바오로회한국이사회	김영철	마티아	ssvpk@hanmail.net
한국가톨릭성령쇄신봉사자협의회	문호	토마스	younamedia@hanmail.net
한국가톨릭시각장애인선교협의회	김정현	도로테아	webmaster@blindmission.or.kr
한국가톨릭노동장년회전국협의회	서선미	로사리아	cmi1021@hanmail.net